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홍길동전〉을 활용한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한국문화교육 연구

김 나 경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협동과정

2024년 2월



<홍길동전>을 활용한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한국문화교육 연구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김 나 경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어 교육 협 동 과 정

지도 교수 강 문 중

김나경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심사위원장

배 영 환



위 원

송재연



위 원

강 문 중



<국문 초록>

## <홍길동전>을 활용한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한국문화교육 연구

이 연구는 중등교육 학습자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홍길동전>을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 학업 단계가 높아질수록 학습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어에 대한 미숙함은 학업에 흥미를 떨어트리며, 학교 및 사회 부적응까지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나 차별과 갈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더불어 사춘기에 들어서면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더 큰 혼란에 빠지는 문제로도 이어진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언론에 드러난 상황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기관의 실태조사들을 활용하여 그들의 현실을 조명해 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교육적 지원’이 많이 부족하며 이를 가장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학습 한국어 실력과 부정적인 정서적 성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에서의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제재로 <홍길동전>을 선택하여 한국 문화교육 단원의 학습활동을 꾸려 보았다. <홍길동전>에 나타나는 문화 요소를 파악하고, 공교육의 교과서 학습활동의 구성안을 차용하여 국어의 읽기, 쓰기, 말하기·듣기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 대상자의 중간자적 성격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다 심화적인 한국 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 주입식 교육이 아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교육이 이루어질 때, 숨겨진 역량을 펼쳐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연구가 앞으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한국 문화교육에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목차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대상 및 방법 .....	5
3. 연구사 정리 .....	7
II.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실태와 한국 문화교육 프로그램 검토 .....	12
1. 언론에 드러난 다문화 가족 청소년 .....	12
2. 인구 현황 .....	14
3. 생활 속 제문제 .....	19
4. 교재 선정 및 분석 .....	24
III. <홍길동전>에 나타난 문화 요소 .....	34
1. 영웅의 일대기 구조 .....	34
2. 신분 제도의 모순 .....	38
3. 가부장제적 시각 .....	41
IV. <홍길동전>을 활용한 문화교육 학습활동 재구성 .....	44
1. 읽기 영역 .....	44
2. 쓰기 영역 .....	50
3. 말하기·듣기 영역 .....	56
V. 결론 .....	60
참고문헌 .....	62

## 표 차례

[표01, 조사 대상 일간지]	12
[표02, 『세종 한국어』증보판 1~8권 문화교육 목차]	24
[표03, 천재교육(노미숙 저) 국어1-1 단원 및 학습목표]	28
[표04, 천재교육(노미숙 저) 국어1-2 단원 및 학습목표]	30
[표05, <홍길동전>에 나타난 영웅의 일대기]	36
[표06, 조선시대 신분제]	39
[표07, <홍길동전>을 활용한 읽기 영역 학습활동1]	46
[표08, <홍길동전>을 활용한 읽기 영역 학습활동2]	46
[표09, <홍길동전>을 활용한 읽기 영역 학습활동3]	47
[표10, <홍길동전>을 활용한 읽기 영역 학습활동4]	49
[표11, <홍길동전>을 활용한 읽기 영역 학습활동5]	50
[표12, 쓰기 영역 글쓰기 지침]	51
[표13, <홍길동전>을 활용한 쓰기 영역 학습활동1]	53
[표14, <홍길동전>을 활용한 쓰기 영역 학습활동2]	54
[표15, <홍길동전>을 활용한 말하기·듣기 영역 학습활동1]	57
[표16, <홍길동전>을 활용한 말하기·듣기 영역 학습활동2]	58

## 차트 차례

[차트01, 학교별 다문화 가족 청소년 수]	15
[차트02, 학급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비중]	16
[차트03, 다문화 가족 청소년 유형과 비율]	16
[차트04, 부모의 출신 국적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비율]	17
[차트05, 다문화 가족 혼인 유형 비율]	17
[차트06, 지역별 다문화 출생아 비중]	18

# I. 서론

##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한국 다문화 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길동전>을 활용하여 교양적이고 교육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 문화교육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한국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인들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입국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노동자 형태의 입국이다. 서울 올림픽을 겪으며 한국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같은 시기에 3저 호황으로 인해 인력난이 발생하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늘어난 것이다. 두 번째는 결혼 전문 업체의 중매를 통해서 결혼 이민자 형태의 입국이다. 1990년대,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국제결혼을 권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그 결과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 외에도 적은 비율이기는 하나 새터민들이나 재외동포들의 입국, 또는 외국인 가족들의 이민 등의 형태도 있다. 그로 인해 한국에 다문화 가족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들의 자녀가 태어나면서 사회의 새로운 일원으로 거듭났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가정교육이나 유아교육 시기에는 여느 아이들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지만, 한글을 떼고 교과과정이 심화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는 학업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그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발화를 구사할 수 있으며 생활을 하는 데도 지장이 없지만, 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과과정을 버거워한다. 그 모습은 듣기와 말하기 능력보다도 읽기와 쓰기의 역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한국어에 대한 미숙함은 국어 과목 이외의 다른 교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학 계산식을 풀 수 있더라도 지문 형태로 문제가 제시될 경우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한국어를 사용함에는 무리가 없지만, 학습 한국어를 어려워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학업에 흥미를 잃고 정진하지 않거나 학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학업 성적 저하는 곧 자존감 하락 문제로도 이어진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의 연쇄는 학교 부적응을 도래하기도 한다. 이 시기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든 시기와도 맞닿아 있다. 청소년기는 사춘기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곤 한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여러 방면에서 가중되는 때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도 또래 친구들과처럼 학업적 성취에 대한 욕망과 만족스러운 취업 성공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 현 상황에서 더 나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교육과정 안에서 또래와 단절된 채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학습 한국어에 대한 부족함과 그로 인한 연쇄적인 부정적 환경들은 한국의 사회·문화와 외국인 부모 사이의 간극 때문에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는 작게는 한 개인에서부터 집단, 조금 더 큰 집단, 더 나아가 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한 집단에서 나고 자라는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문화를 습득한다. 습득된 문화는 주변 환경의 모방을 통해서 체화되거나 어릴 적부터 교육받아 온 결과이다.

하지만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들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문화에 배경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족의 부모 중 외국인의 경우 그들의 자녀들에게 한국 문화교육을 전달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꾸준한 교류가 있을 때 문화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대다수는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집단 또는 사회 구성원 간의 문화 공유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교양적이고 교육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교육이 필수적이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한국어 어학교육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어학교육과 더불어 문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학습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이며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한

국 문화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한국 문화교육에서의 ‘문화’란 개인이나 한 집단에서 드러나는 보편적 사유와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다방면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하나의 문화가 여러 범주에 걸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는 간단히 정의하고 짧고 명확하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복잡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필립 스미스의 『문화 이론: 사회학적 접근』에서는 문화의 정의를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sup>1)</sup> 그중에서 ‘기술적 정의’와 ‘규범적 정의’가 이 연구가 목표하는 문화교육에서의 ‘문화’의 정의에 바탕을 둔다. 이 연구에서의 ‘문화’는 첫 번째로 기술적 정의로써 한국의 모든 사회생활을 포괄하는 것으로, 언어, 관습, 예술, 정신, 법도, 사상, 등의 복합적인 전체를 말한다. 두 번째로 규범적 정의로써 한국의 삶의 양식과 물질적·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기술적 정의로서의 ‘문화’는 한국의 고전 ‘문학’을 소재로 사용하여 문화를 교육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문학’ 속에 담긴 규범적 정의로서의 ‘문화’인 ‘종합적인 삶의 양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문화교육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독자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양상을 깨닫고 그 가치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고 가치관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인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더 이상 소수로만 존재하지도 않을뿐더

1) 필립 스미스(2008), 『문화이론: 사회학적 접근』, 이학사, pp.18-19.  
문화의 여섯 가지 정의

기술적 정의	사회생활을 포괄하는 의미로 지식, 신념, 예술, 법, 관습,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전체
역사적 정의	세대를 가로질러 전달되고 있는 사회적 유산들의 전체
규범적 정의	개인 혹은 집단의 삶의 양식과 물질적·사회적 가치
심리학적 정의	물질적·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제 해결 장치
구조적 정의	구체적인 양식과는 다른 추상적인 것
발생론적 정의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인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것 혹은 세대 간 전달의 산물

러 이질적인 존재도 아니며 한국을 구성하고 있는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다른 또래와도 같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맡은 바를 책임지고 나아가는 인물로 거듭나야 한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교육적 성장을 이루고 사회적 적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도울 조력자가 필요하다. 이때 조력자는 주변 인물들뿐만 아니라 잘 만들어진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제시하여 도움이 되고자 한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한국 문화교육의 제재로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하고자 한다. 우리 고전문학에는 오늘날까지 통용되는 한국의 보편적 사유와 정신이 담겨 있다. 선인들이 경험한 일들은 현재에 와서는 시대적·문화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며 곱씹어볼 만한 가치를 가진다. 그들이 깨우친 지혜와 통찰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문학은 재미있고 흥미거리가 있는 글로 우리의 국어 문화를 즐기기에 적당하다.

문화교육을 위한 고전문학 작품으로는 영웅 서사를 담고 있는 <홍길동전>을 선정하였다. <홍길동전>은 수차례 교과서에 실리면서 교육적인 작품성을 인정받은 한국의 영웅소설이다. <홍길동전>과 같은 영웅 서사는 청소년들에게 몰입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기에 좋은 소재이다. 또한 영웅 서사에 드러나는 영웅의 일대기 특징이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 자주 직면하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과도 닮아 있기에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영웅 서사 속 인물에 자신을 대입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홍길동전>에 드러나는 문화 요소들을 짚어 보면서 오늘날과 과거를 비교하고 이해하며 보다 심층적인 문화교육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안에서 한국어 어학 교육과 더불어 ‘한국 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한국 태생에다가 모국어가 한국어라는 점에서 국어 교육 대상자에 포함되고 있지만, 가정 환경적으로 특수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어 교육의 범주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육 안에서 한국 문화교육을 녹여내는 쪽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범주 중

어느 연령대에 <홍길동전>을 교육하였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고려하였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혜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본다. 이러한 한국 문화교육을 통해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해 내는 삶을 꿈꿀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 2.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다문화 가족 청소년이다. ‘청소년’의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기본이 되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한다. 그중에서도 중등교육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연령대 중 중등교육 학습자의 시기가 초등교육을 벗어나서 교과과정의 심화되는 단계에 놓여 있다는 점과 정체성 고민이 깊어지는 사춘기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고려한 선택이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유형은 크게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와 외국인 가정의 자녀, 중도입국 자녀로 나뉜다.<sup>2)</sup>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되, 나머지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가정과 출생 환경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그들이 한국에 터를 두고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공통되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지역적 범주는 대한민국 전국으로 둔다. 이들에 대한 여러 통계 자료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와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교육 기본 통계 주요 내용>으로, 각 부처에서 가장 최근에 발행한 자료들로 활용한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 대한 기타 인식 및 정보는 언론에 드러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언론은 보다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사건을 전달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실태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근 5년 간 다문

2) 교육부에서 다문화 가족 유형을 구분한 방식이다.

화 가족 청소년들과 관련된 기사를 훑어보고 한국 문화교육의 필요성의 근거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다문화 가족 청소년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분석할 것이다.

먼저 한국어 교육에서 구성된 문화교육을 살펴보고, 중등 국어 교과서의 학습활동 형태를 접목시켜서 문화교육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중등 국어 교과서의 학습활동 구성안을 활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과서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과 비다문화 가족 청소년들 모두가 접하는 중요한 교육적 매체라는 점이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그들끼리 차별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다문화 가족 청소년들과도 정규 교육과정에서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과서는 또래의 누구나 공평한 교육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매체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학습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문화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학습활동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으로 구성하였지만, 비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함께 교육받아도 충분할 정도의 심층적인 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더하여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어학 및 문화교육은 국어 교육보다는 한국어 교육의 성격에 더 가깝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들의 교육 주체는 국어 교육 전공자보다도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더 어울린다. 하지만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학습 한국어 능력이라는 점과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이미 공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점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환경으로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이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전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sup>3)</sup> 따라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한국어 교육 환경에서만 아니라 공교육 환경 내에서도 한국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자면 정규교육의 교과서 틀을 차용하는 점이 옳다는 판단이다.

3) 원진숙(2008), 「다문화 시대의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Vol.32, 국어교육학회, pp.293-294.

### 3. 연구사 정리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어학 및 문화교육에 관련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 가족 자녀라는 대상의 기준과 교육의 분야도 다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유형에 따라서, 또는 초·중·고등 교육에 따라서, 교과에 따라서도 구분 지어진 교육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고전 서사를 이용하여 문화교육을 연구한 자료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박현주(2008)<sup>4</sup>)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전 텍스트를 활용한 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와 비다문화 가정 자녀가 함께 교육받는 ‘학년별 통합교육 모형’을 기반으로 <설화 속의 호랑이> 교육의 실재를 제시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학업 수준으로 구분한 ‘수준별 통합교육 모형’을 기반으로 <아기 장수 우투리> 교육의 실재를 제시하였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서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교육이 중등교육에서부터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연구가 미흡한 점을 짚으며 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고전교육의 효과를 기대했다.

월진숙(2008)<sup>5</sup>)에서는 지금까지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이 교육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분야로 인식되어 왔음을 언급하며 초등 국어과 교육에서 이제 자국어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모국어 교육으로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으로까지 확장해야 함을 주장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문제를 3가지로 요약하였는데 첫째, 언어 능력이 부족하여 학습 부진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 둘째,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겪는다는 점, 셋째, 집단 따돌림과 같은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을 들어 다문화 교육의 핵심을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자녀와 같은 문화적 소수자에게 힘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혜진(2009)<sup>6</sup>)에서는 최근 국어 교과에서 문학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연구가 많

4) 박현주(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고전 텍스트 활용 교육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월진숙(2008), 앞의 논문.

6) 문혜진(2009), 「고전문학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방안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아지고 있지만 그 분야가 현대문학에 치우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고전문학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속적이기보다는 일회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점을 꼬집으며 지속 가능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고전문학을 활용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모형을 보여주었는데, 설화의 <아기 장수 우투리>와 고전 시가의 <가시리>, 고전소설의 <박씨전>을 가지고 중학교의 고전문학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안미영(2011)<sup>a7)</sup>에서는 ‘이물교구설화’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교육을 연구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나무꾼과 선녀>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강감찬 설화>를 활용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하여 심리적 안정과 함께 자아정체성을 함양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영웅탄생형 이물교구설화에 주목하였는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설화 속 인물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리라 예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 문화교육을 교육연극을 통해 이루고자 하였으며, 준비 단계, 상황 제시 및 설정 단계, 재구성 및 확대 단계, 공유 및 내면화 단계, 정리 단계까지 총 다섯 가지 단계로 보여주었다.

안미영(2011)<sup>b8)</sup>에서는 앞서 살펴본 연구를 토대로 웹 기반의 문화교육 효과를 노력 보았다.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학습이 가능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수업 내용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며,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과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점을 기대 효과로 보았다.

전철웅·우혜경(2011)<sup>9)</sup>에서는 다문화 교육 자료로서의 고전문학의 가치를 강조하며 중학교 학생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해 연구하였다. 고전문학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교훈을 개개인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

7) 안미영(2011), 「고전설화를 활용한 다문화가정의 한국문화교육 연구」, 한국의외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안미영(2011), 「미디어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영웅탄생형 설화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Vol.2011 No.0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9) 전철웅·우혜경(2011), 「고전문학을 활용한 중학교 다문화교육」, 『개신어문연구』No.33, 개신어문학회.

목표를 두었다. 서울 소재의 영원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미국, 프랑스, 캐나다에서 온 유학생을 함께 교육 대상으로 삼아 고전문학을 활용하여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명현(2014)<sup>10)</sup>에서는 이야기로서의 가치도 풍부하고 한국 문화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의 판소리계 소설을 활용하여 한국 문화교육을 연구하였다. 고전소설은 과거 이야기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새로운 이야기로 변주되기도 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패러디되기도 함을 언급하며 새롭게 재구성되는 콘텐츠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문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고정희(2015)<sup>11)</sup>에서는 고전문학의 어떤 가능성들을 찾아서 교육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연구와 실천을 해야 하는지,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다문화 문식성'에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정부 주도의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실용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문식성을 단순히 읽고 쓰는 기능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사회 맥락에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활용하는 능력으로 재정의하였다.

박영민(2015)<sup>12)</sup>에서는 고전문학 작품인 <홍길동전>을 활용하여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결합하고 다문화 교육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 아동의 문제가 흥판서와 춘섬의 결합과정, 생득적 요소로 인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홍길동전>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린 고전문학 작품 <홍길동전>을 학생 중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였다. 국어과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과 교육에서 차별을 다룬 주제와 함께 비교하며 융합교과교육이 이루어졌을 때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안미영(2015)<sup>13)</sup>에서는 고전 수필 <슬견설>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문

10) 이명현(2014), 「외국인의 한국문화 교육에서 고전소설의 가치와 학습 방향=<춘향전>,<심청전>,<흥부전>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No.17,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11) 고정희(2015), 「고전문학의 지속가능성과 고전문학 교육」, 『한국한문학회』No.57, 한국한문학회.

12) 박영민(2015), 「다문화 시대의 고전문학을 활용한 융합교과교육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안미영(2015), 「다문화교실에서의 한국문화교육 방안」, 『어문론집』Vol.63, 중앙어문학회.

화 가정 자녀 교육 방안을 연구하였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인의 총체적인 삶이 담겨 있는 고전문학을 활용하여 교육함으로써 자신과 타인 간의 사고의 차이를 좁혀가면서 각자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것을 기대하였다. 교육은 3단계로 구성하였으며, 1단계는 준비 단계로 반응 형성을 위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2단계는 학습자의 반응 형성 및 명료화 단계로 학습자와 텍스트의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며, 3단계는 학습자의 내면화 단계로 쓰기 활동을 통해 심화시키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각 연구마다 고전문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고전문학을 통해 한국의 문화교육이 이루어질 때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특히 두드러졌던 연구는 안미영의 연구들이었는데, 안미영은 꾸준히 고전문학을 제재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문화교육을 강조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또한 박현주(2008), 문혜진(2009), 전철웅·우혜경(2011), 박영민(2015)에서는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초등교육에 비해 비교적 연구가 적었던 중등교육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고전 문학이라는 제재의 교육적 활용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비해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교육 활동으로 실천할 것인지 잘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문화 가족 자녀의 범주가 연구마다 모두 달라서 적용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다문화 가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이었으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연구 결과도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생활 전반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 초등교육은 물론 중요한 교육이지만,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정체성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에 학습하는 중등교육도 중요하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 대상 교육은 초등교육에서만 머무르며 모두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상으로도 그들의 심화적인 언어생활과 정서 및 교양 함양을 위한 문화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 어떤 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제Ⅱ장에서는 한국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봄에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 대상인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할 것이다. 언론에서 드러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어떤 현실들을 마주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그들과 관련한 인구 현황을

표와 차트로 시각화하여 정리할 것이다. 더하여 국가 기관의 자료에서 드러나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생활 속 제문제들을 훑아보고 그들의 실질적 문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 대상인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하고 그 대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 문화교육의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에서 쓰이는 ‘교재’로 한다. 교재는 학습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며 학습은 물론이고 예습과 복습 등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문화교육은 교재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중등 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서 속의 문화교육도 함께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한국 문화교육의 제재로 삼았던 <홍길동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홍길동전>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화 요소를 선정하고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한국 문화교육에 있어서 교육적 자료로서의 중요한 이유를 짚어보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홍길동전>을 활용하여 한국 문화교육 학습활동을 재구성해 볼 것이다. 문화교육 학습의 영역을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로 세분화하여 구성하고자 한다. 이때 학습활동은 중등 국어 교과서의 구성안을 차용하여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교과과정의 학습 수준을 유지하면서 학습 한국어 실력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Ⅴ장에서는 이 연구가 제대로 수행 되었을 때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 나타날 교양적 언어생활과 긍정적 정서 확립의 효과를 기대하며 결론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 II.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실태와 한국 문화교육 프로그램 검토

### 1. 언론에 드러난 다문화 가족 청소년

한국에서 다문화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그 자녀들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도 늘어났다. 한국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실질적인 어려움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통해서 지난 5년 간의 기사를 추려 보았다.

빅카인즈에서는 조건에 맞춰 원하는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뉴스 검색·분석 기능을 이용하였다. 먼저 기간 설정은 2019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하여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하였다. 언론사는 전국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01, 조사 대상 일간지]

구분	일간지 명
전국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기도	경기일보
강원도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충청도	대전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경상도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라도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무등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주도	제민일보, 한라일보

전국 일간지로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있다. 지역 일간지로는 경기일

보,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무등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가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2022년 신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인된 신문사는 5,397곳으로 집계되었으나 위의 표에서 드러나지 않는 언론사 및 신문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곳들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외 경제일간지와 방송사, 전문지라는 선택란이 있었으나 찾고자 하는 주제와 맞지 않아 제외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지역, 스포츠, IT\_과학으로 이루어진 통합분류 항목에서는 ‘사회, 문화, 국제, 지역’ 4가지를 설정하였다. 범죄, 사고, 재해, 사회로 이루어진 사건사고 항목에서는 ‘사회’로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단어의 포함 여부를 통해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상세검색을 설정하였다. 검색유형은 뉴스, 인용문, 사설 중 ‘뉴스’에 한정하였으며 검색어 처리는 형태소 분석으로, 검색어 범위는 제목과 본문 모두를 포함하도록 설정하였다. 단어 상세 검색으로는 ‘단어 중 1개 이상 포함, 다음 단어 모두 포함,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 다음 단어 제외’의 세부 항목이 있었으며, ‘단어 중 1개 이상 포함’의 항목에서 ‘다문화, 자녀, 교육, 정체성’ 4가지 단어를 넣었다.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로는 ‘다문화, 자녀’ 2가지 단어를 넣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사를 수집하되,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을 찾고자 하였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교육과 정체성 문제에 기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교육’과 ‘정체성’이라는 두 단어도 포함하였다.

이렇게 뉴스를 검색·분석한 결과 450여 개의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그 중 다문화 자녀들의 어려움을 다룬 기사는 80여 개로 추릴 수 있었다. 빅카인즈에 드러나지 않는 언론사의 기사들까지 취합한다면 더 많은 관련 기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2022년 하반기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발표에 인용을 두고 있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진행되며, 2019년에 발표한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자료에 기반을 둔 기사도 보였다. 더불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와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교육 기본

통계 주요 내용>을 통해서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기사에서 드러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어려움은 다양했다. 한라일보 기사<sup>14)</sup>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위기 청소년 상담사례 접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부모 상담이 어려운 상황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었다. 한겨레 기사<sup>15)</sup>에 따르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을 두고 차별을 하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깔보는 문화가 퍼져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슷한 유형의 어려움들이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은 교육과 관련이 있었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도 학교 공부가 어려운 이유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가장 요구가 높은 서비스로도 학습지원을 우선으로 꼽았다. 또한 대학 진학을 바라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은 많아졌지만, 학업 중단 사례도 못지않게 많아진 문제점도 있었다. 더불어 여전히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다문화 가족을 향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그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었다. 사회적 색안경 때문에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취업과 직장생활 등에서도 불이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 2.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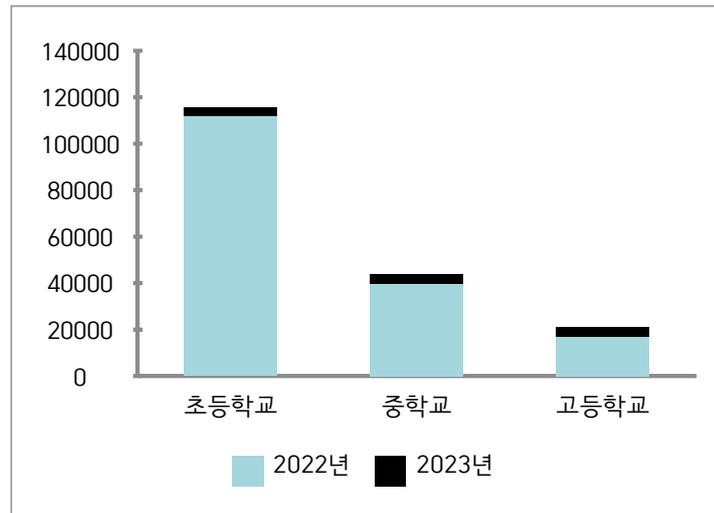
다문화 가족 청소년은 만 9~24세의 연령에 속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2021년도 조사에 응답한 다문화 가족 자녀는 총 8,296명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한 추정치는 총 127,849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도리어 그 비중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의 <2023년 교육 기본 통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초·중학교 다문화 학생은 181,178명으로 전체 학생의 3.5%나 차지하고 있다. 전년 대비 12,533명(7.4% ↑) 증가한 것이다.<sup>16)</sup> 여기서 다문화 학생이란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

14) 조상윤, “이주배경 청소년 통합 지원 기능 강화 시급”, 한라일보, 2019-06-26.

15) 정희경, “병x병어리장갑·결정장애... 이 말은 누구를 아프게 할까요”, 한겨레, 2019-10-14.

녀를 합한 수로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자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sup>17)</sup>

[차트01, 학교별 다문화 가족 청소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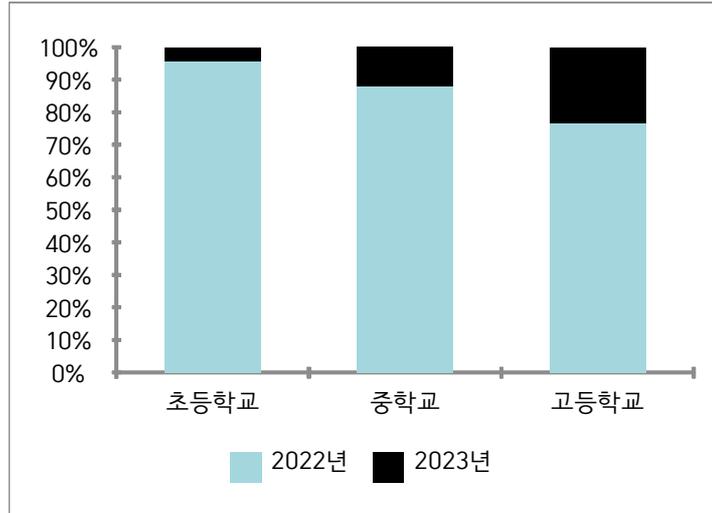


먼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다문화 가족 청소년 수를 살펴보았다. 초등학교는 115,639명으로 전년 대비 3,999명(3.6% ↑)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43,698명으로 전년 대비 3,984명(10.0% ↑)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는 21,190명으로 전년 대비 4,446명(26.6% ↑) 증가하였다. 각 학교별로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에 진학한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비중이 무려 20% 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가는 관문 앞에서 있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많아진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중학교, 초등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그 비중은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이다. 다음으로 각 학교의 학급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비중을 살펴보았다. 학급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비중도 학교별 비중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16) 교육부에서 집계한 통계에는 여성가족부의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다. 교육부는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에서 외국인 가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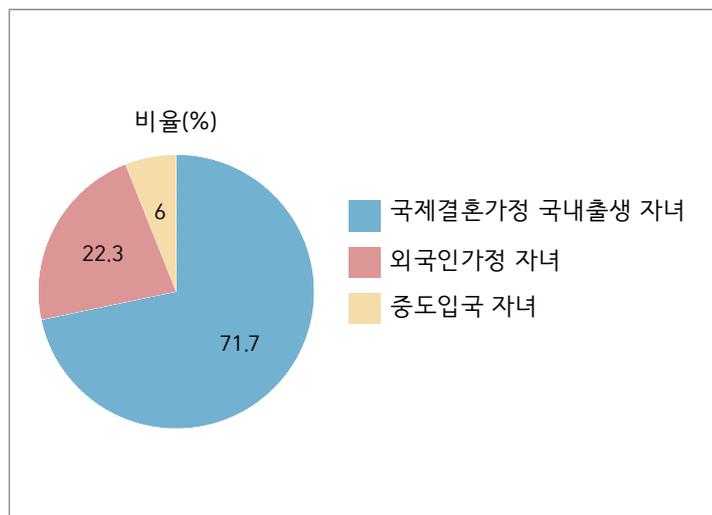
17) 이후 필자가 정리할 통계에 대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통계청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교육부 <2023년 교육 기본 통계 주요 내용> 자료를 활용 하였다. 구체적인 정보에 관련된 각주는 생략하기로 한다.

[차트02, 학급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비중]



학급별로 다문화 가족 청소년 비율은 초등학교가 4.4%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고, 중학교는 3.3%로 전년 대비 0.4%p 상승했으며, 고등학교는 1.7%로 전년 대비 0.4%p 상승했다. 전체적인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지만 다문화 학생의 비율과 비중은 커지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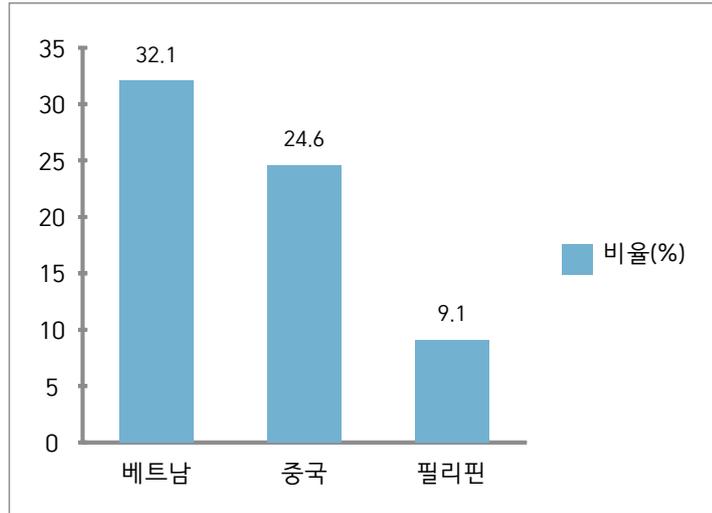
[차트03, 다문화 가족 청소년 유형과 비율]



또한 집중해 볼 부분은 국제결혼가정 중 국내 출생인 다문화 자녀는 전체 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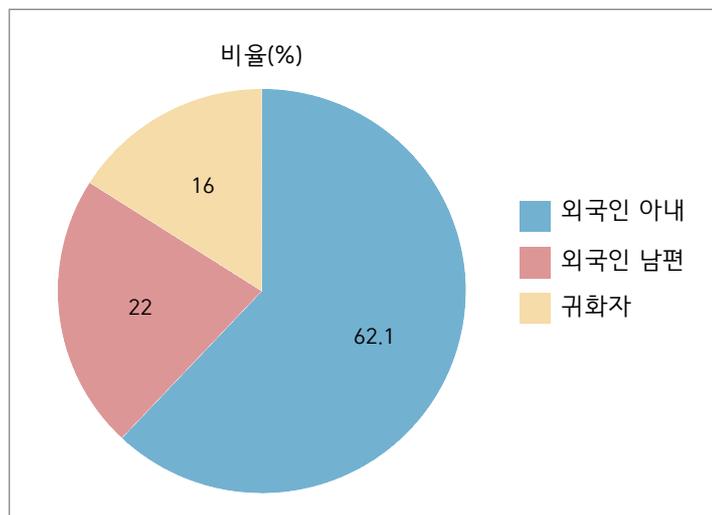
화 학생의 71.7%나 차지한다는 점이다. 외국인가정 자녀가 22.3%(40,372명), 중도 입국 자녀가 6.0%(10,896명)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차트04, 부모의 출신 국적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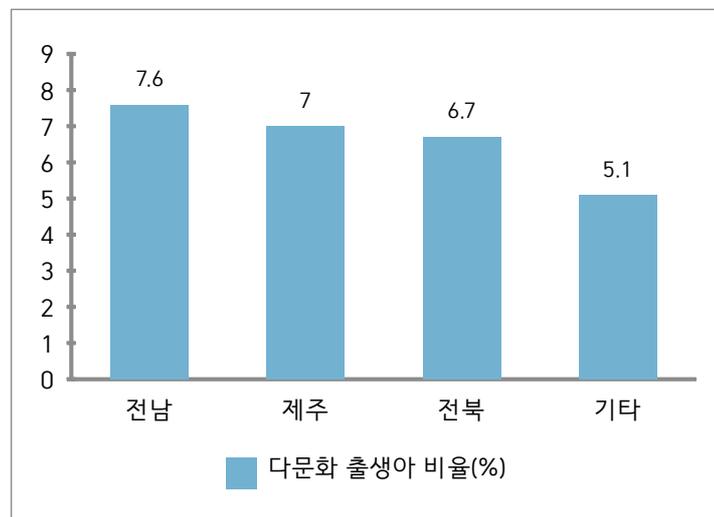
다문화 가정 부모의 출신 국적별 다문화 학생 비율은 베트남이 32.1%(58,136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 24.6%(44,587명), 필리핀 9.1%(16,568명)로 높은 순으로 차지했다.

[차트05, 다문화 가족 혼인 유형 비율]



통계청의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의 유형은 외국인 아내(62.1%), 외국인 남편(22.0%), 귀화자(16.0%)로 부모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비율이 높았으며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도 아직까지는 적은 숫자이지만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여성들이며 가까운 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로 한국의 다문화 가정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차트06, 지역별 다문화 출생아 비중]



다문화 가정 인구를 지역적으로 나누어 볼 때, 통계청의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다문화 혼인 비중과 출생아 수가 많다. 지역별 다문화 출생아 수는 경기(4,245명), 서울(2,322명), 인천(900명) 순서로 높지만, 각 지역별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남(7.6%), 제주(7.0%), 전북(6.7%) 순으로 높았다. 공장과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다문화 인구가 몰리는 것으로 보이나, 수도권에 비해 월등히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의 다문화 출생 비중이 높다는 점은 고려해 볼 문제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다문화 자녀 비중이 크게 차지한다는 의미인데, 고령화와 더불어 지역 소멸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에서 다문화 가정 출생률은 높다는 점은 그들을 사회로부터 더욱 소외시키고 있는 문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의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이러한 상황은 그들의 사회적 적응 함양에 대한 교육적 대안이 필요함을 생각하게 한다. 도시가 아닌 지방에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고려할 문제이다. 현재 한국에서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반면에 지방에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늘어나고 있다. 갈수록 증가하는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지방은 여러 혜택에서도 곧잘 소외 받는다. 교육적 혜택도 마찬가지이다. 환경적인 요인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또한 빼앗을 수 있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장차 한국 미래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주역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런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문제를 더 세분화 해볼 필요가 있다.

### 3. 생활 속 제문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어떤 생활환경과 문제들에 처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나열된 문제들을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가정에서의 생활과 학교에서의 생활, 더하여 사회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훑어본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생활 속 제문제를 짚어본 결과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해볼 수 있었다.

첫째, 일상대화 속 언어의 문제이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관계에 있어서 비다문화 가족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7%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은 30분~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27.0%로 가장 많았다. 부모 모두 통틀어서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1시간이 채 되지 못한다는 부족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여성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아이들은 한국인 아버지보다도 외국인인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조금 더 많은 편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결혼이민자인 어머니가 한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

어로도 어머니의 모어로도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언어적 문제로 이어진다. 다문화 청소년 아이들이 언어적 교류를 활발히 일으키고 언어를 통해 정서적 활동을 이어나갈 때 가장 큰 도움을 주어야 할 부모의 역할에 부재가 생기는 것이다. 가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언어 활동은 학교나 사회에서도 언어 사용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버린다. 실제로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을 이유로 든 학생들도 존재했다.

이러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언어적 문제는 자주 이중언어를 배울 수 있는 유리한 환경처럼 여겨지고는 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은 부모 중 결혼이민자는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거나 알아듣지 못하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자라고 있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은 부모와의 대화시간도 부족한 채로 방치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외국출신 부모 나라 언어를 더 잘하는 비율은 3.7%로 5.9%인 2018년의 여성가족부 조사보다도 줄어들었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국내 출생 다문화 청소년보다도 중도입국 청소년일 확률이 높다. 이중언어에 대한 선호도는 외국계 부모의 출신국과 관련성이 높는데, 미주·유럽·대양주 출신의 경우는 높게 나타나지만 그 외에는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더불어 외국 출신 부모의 모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2018년과 2015년 대비 지지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이 교육적 문제와 더 직결되었고 따라서 언어에 대한 부담이 더 높아졌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제도권 교육 이탈 문제이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 중 90%가 넘는 비율이 한국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이나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들이 그만둔 주된 이유는 ‘그냥 다니기 싫어서’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춘기적이고 반항적인 표현으로 생각된다. 그들이 느끼는 실질적 문제점을 직시하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업 중단에 이후의 모습으로는 돈을 벌거나 편입학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나 선생님과 관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도 23.4%에서 2021년도 8.3%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함에 따라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도 잘 녹아들고 있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근 3년 사이에 큰 수치가 나올 수 있었던 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

해 학교에 직접적으로 등교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수업시간을 제외하면 함께 어울려야 하는 합동 수업이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피하고 온전히 개인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됨에 따라 학교생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또한 학교에 등교를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칸막이 속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점심을 해결하며 친구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했던 환경이 도리어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생활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더불어 학교폭력 피해 경험도 2018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2.3%로 급격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강제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했던 코로나19 상황의 영향이 미쳤으리라 본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학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수치는 이전 조사 대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학교 공부가 어렵다는 점이 56.2%로 가장 크게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점이 55.4%를 차지했다. 그 외 부모님의 관심이나 경제적 지원의 부족, 한국인과는 다른 외모의 차이 등의 이유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학교 공부가 어려운 점은 한국어에 대한 미숙함의 원인이 클 것이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학업과 같은 교양적이고 교육적인 활동 시, 비다문화 가족 청소년과 비교할 때 부족한 언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앞서 살펴 본 부모와의 대화시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언어적 교류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야 할 부모와의 관계에서 언어가 그 사이를 충분히 메꾸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차별의 경험과 지속적인 자존감의 감소 문제이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 중 2.1%는 지난 1년간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는 줄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로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이 줄어들자 마찰도 줄어든 것이다. 이들은 주로 친구로부터 차별 받는 경우가 69.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23.7%, 선생님이 20.2%, 이웃이 18.7%로 많이 차지했다. 생활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학교의 구성원들로 인한 차별 경험이 두드러져 보였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선생님들로부터 받는 차별로는 이름이 아

닌 ‘다문화’로 불리는 경우가 있었다. ‘다문화’라는 한 마디로 누구인지가 통용되어 쓰이는 경우였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차별 받는 상황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어떻게 할 수조차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상황을 무마했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조사 결과는 긍정적인 방향에 가깝지만, 2018년 이전에 비해서도 낮아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연령이 어릴수록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면서부터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됨에 따라 드러나는 문제이다.

넷째, 부족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문제이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가장 요구가 높은 서비스는 바로 학습지원이었다. 이어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외국어 출신 부모님 나라 문화 이해 교육, 학습/관계 상담, 외국출신 부모님 언어교육 등의 순이었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지원이 다양할 듯 해보여도 실제로 지원서비스 수혜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수혜율을 보인 학습지원의 경우 34.8%였다. 학습지원이야말로 요구도 높을뿐더러 높은 수혜율을 보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절반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수치이다.

다섯째, 고등교육 진학 및 취업률 저하 문제이다.

한국일보의 ‘다문화 자녀 93%가 고등교육 바라지만… 40%만 대학 갔다’<sup>18)</sup>라는 기사에 따르면 대학 진학을 바라는 다문화 가족 자녀는 많아졌지만 실제로 진학하는 자녀는 적은 것으로 보도한다. 10명 중 4명 정도만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다문화 부모의 교육 관련 정보 부족이 주된 이유로 보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중앙일보의 ‘다문화 가정까지 저출산 퍼졌다… 10집 중 4집 무자녀, 이유는?’<sup>19)</sup>이라는 기사에서 다문화 가족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선 비율이 절반에 육박했으나 진학률이 낮은 문제점을 짚고 있었다. 대학 진학의 경우는 전체 국민과 30%p 이상 차이를 보였다.

18) 홍인택, “다문화 자녀 93%가 고등교육 바라지만...40%만 대학 갔다”, 한국일보, 2022-06-28.

19) 황수연, “다문화 가정까지 저출산 퍼졌다...10집 중 4집 무자녀, 이유는?”, 중앙일보, 2022-06-27.

같은 날 서울신문의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 진학률 40.5%… 전체 국민 대비 30%p 낮아’<sup>20)</sup>라는 제목의 기사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희망 교육 수준은 전문대, 4년제 대학을 통틀어서 90.4%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희망자의 절반 이하만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

위의 세 가지 기사 모두 여성가족부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학업을 그만 두는 이유로 ‘그냥 다니기 싫어서’라는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을 떠올릴 때, 사실은 그 내막의 진실한 이유는 언어 환경과 사교육에서 뒤처지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그만 포기해버리는 경우라고 추정할 수 있다.

경향신문의 ‘10년간 다문화 학생 3배 이상 늘었는데… 취학률, 고용률 낮아’<sup>21)</sup>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지난 10년 간 다문화 학생은 3배 이상 늘었지만, 국내 일반 청소년과 비교해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률도 낮은 수준인데 취업시장에서 주로 서비스직이나 단순 노무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이처럼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생활 속 문제들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보았다. 살펴본 문제들 대부분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주된 생활 범주가 가정과 학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문제들을 종합한 결과 최종적으로 교육 문제로 직결 되었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언어 문제에 도움을 주고 제도권 교육 이탈과 취학률 저하의 문제를 막으며 자존감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어학 교육이나 학업적 교육 지도만으로는 부족하며 폭 넓은 문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은 모두 문화적인 요소들과 결합되어 있다. 언어 교육을 받을 때도 그 언어의 문화적 요소를 빼어 놓고는 가르치거나 배울 수 없다. 하지만 문화교육은 자주 부가적인 것으로 방치되고는 한다. 문화를 습득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사회에 어울릴 수 있고 더 넓은 세상으로 시야를 확장할 수 있다. 심층적 문화 교육 프로

20) 이슬기,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 진학률 40.5%...전체 국민 대비 30%P 낮아”, 서울신문, 2022-06-27.

21) 유선희, “10년간 다문화 학생 3배 이상 늘었는데...취학률·고용률 낮아”, 경향신문, 2022-02-04.

그럼은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더불어 어울리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4. 교재 선정 및 분석

한국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는 교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어학교육에 비하면 적은 분량이라는 하나 한국 문화교육에 관련한 내용도 첨부되어 있다. 한국어 교육 교재는 여러 기관에서 제작과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는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 또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작한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어 교재에서 문화교육은 단원이 끝나고 나면 추가적인 부분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알아가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거나 단원 구성 자체에 녹아들어 있다. 한국어 교육 교재 중 국립국어원 제작의 교재들을 중심으로 문화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국어원의 기획과 출판으로 세종 어학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종 한국어』증보판 교재의 경우, 모두 12단원으로 이루어진 단원 중 각각 세 단원씩 끝날 때마다 한국 문화교육 부분이 하나의 소단원씩 들어가 있다. 『세종 한국어』증보판은 1권부터 8권까지 있으며, 1권부터 4권까지는 초급 학습자를 위한 교재이고 5권부터 8권까지는 중급 학습자를 위한 교재이다. 이 교재의 문화교육 목차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표02. 『세종 한국어』증보판 1~8권 문화교육 목차]

구분	문화1	문화2	문화3	문화4	문화5
1권	한국인의 인사법	한국의 화폐	한국의 사계절	한국의 주말활동	-
2권	한국 음식	한국의 대중교통	한국의 여행지	한국 사람들의 모임	-
3권	한국인의 축하하는 날	한국인의 휴가	한국인의 공공예절	한국의 날씨와 음식	-

4권	한국인의 주거생활	한국의 결혼 문화	한국의 대중문화	한국의 지리	-
5권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직업	한국의 선물 문화	상황별 존댓말과 반말의 사용	한국인의 부탁과 거절 방식	소원을 비는 한국인
6권	한국인의 여행 문화	한국의 대표 도시	세계 속의 한국 기업	한국의 AS 서비스	한국어와 한국 문화
7권	한국의 민간요법	한국의 가족 문화	한국의 결혼 풍습	한국의 면접	한국을 소개하는 유용한 사이트
8권	한국의 인물	한국의 세계문화 유산	한국인의 직장생활	한국의 옛날 이야기 속 인물들	한국의 입학과 졸업

『세종 한국어』증보판 교재에서는 ‘문화’라는 소단원 속에서 한국 사회생활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인사법부터 화폐, 사계절, 음식, 주거 생활, 결혼 문화, 인물, 문화유산, 등 문화의 항목을 여러 가지 분야로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해 전체적인 이해와 소개로는 적합한 주제와 내용이 선정되었으나,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정체성 함양을 이루어줄 수 있는 심도 있는 문화 교육을 이루는 데는 부족해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이거나 한국어를 제2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인 것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교재의 사용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국제결혼가정 국내 출생 자녀들이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출생의 경우 모어는 한국어가 된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 중 ‘한국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는 국어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가정 환경적인 배경으로 인해 한국어 교육의 경계에도 걸쳐지게 된다. 따라서 『세종 한국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 교재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는 적합하지 못하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그리고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

국민을 대상으로 2020년 『한국어와 한국문화』라는 교재를 출판하였다. 이 교재는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써 사용하고자 만들어졌다. 기초편, 초급 1·2권, 중급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화교육을 따로 단원으로 만들지 않고 각각의 단원마다 녹여내며 어학교육과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교재가 대상자로 두고 있는 ‘국내 이주민’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볼 때 결혼 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중도 입국 자녀들, 등이 대상이 된다. 여기서도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위치는 이주민이 아니라는 점에서 애매하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문화 가족은 ‘多文化’라는 뜻을 짚어 볼 때, 한 가족 안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인물들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가족 단위 안에서도 누군가는 한국인이며 누군가는 외국인이고 누군가는 그 모두의 정체성을 물려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한 가족 단위 안에서도 대상의 유형이 다르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재 또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 문화교육을 가르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셋째,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기획하고 출판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와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정확한 한국어』 교재가 있다. 이 교재는 각각 초급 1·2권과 중급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재도 마찬가지로 문화교육에 관한 부분이 별도로 제시 되어 있지는 않으며 어학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제목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함을 밝히고 있지만,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는 세부 대상자를 살펴보면 성인 결혼 이민자가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 범위를 다문화 가정으로 확대시킨다고는 하였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꾸려져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는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교재 외에도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의 ‘누리-세종학당’에서는 ‘한국 문화’라는 페이지를 따로 구분 짓고 한류, 한식, 한국 여행, 한국 생활, 전통, 문학, 세종학당이라는 세부 항목에서 한국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과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문화 교육 수업 시 부가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했으나, 그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양이 적다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또한 다문화 가족센터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교육은 강연이나 체험활동 등 일회성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문화교육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 프로그램은 한국 문화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재의 한 단원의 형태로 녹여낼 것이다. 단원의 형태는 공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어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따른다. 그 이유는 교과서는 국가에서 검정된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틀을 활용했을 때,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비다문화 가족 청소년들도 모두 교육을 받기에도 적합한 이점도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그들의 언어적 실제와는 상관없이 모어를 한국어로 쓰는 환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보다는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어과 교과서를 선택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교과서의 범주는 중등 국어 교과서로 한정한다. 중등교육 시기의 청소년의 연령은 사춘기가 시작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평균적인 연령에 속한다. 특히나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초등교육에서 벗어나 심화된 중등교육으로 접한 시기와의 맞물려 있다. 이 시기의 중등교육은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개인 스스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줄 아는 정서적 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중등교육 시기의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신체적인 성장과 변화 이외에도 정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변화를 겪게 된다. 정서적 변화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고민이 일어나게 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와 자주 직면하게 된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교육의 단계가 올라가는 지점 앞에서 사춘기와 그 시기가 맞물리게 되어 어려움을 겪을 때, 문화 교육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 문화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그들이 교양적이고 교육적인 언어적 수행을 성취해 내고자 하는 것과 동시에 올바른 정체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의 교과서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검정 교과서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국어 교과에서는 ‘국어1-1’, ‘국어1-2’, ‘국어2-1’, ‘국어2-2’, ‘국어3-1’, ‘국어3-2’로 학년과 학기별로 구분된 교과서가 존재한다. 국어 교과에서 검정 교과서로 채택된 출판사로는 ‘교학사’,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창비’, ‘천재교육’으로, ‘천재교육’에서는 국어 교과목에서 대표저자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교과서가 제작되어 모두 9개의 검정 교과서가 존재하였다. 이 중에서 가

장 높은 교과서 채택률을 가진 천재교육<sup>22)</sup> 출판사의 국어 교재를 선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천재교육에서 발행한 검정 교과서 중 노미숙 대표 저자의 교재로 살펴보았다. 중등교육 1학년 교과서인 ‘국어1-1’과 ‘국어1-2’가 기준이다. 교과서에 나타난 중등교육에서는 어떤 학습 목표를 두고서 어떤 활동으로 교재를 꾸렸는지 짚어보며, 그 제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부가 발행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교육 과정의 목표를 담고 있다.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국어 활동과 공동체의 국어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 국어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듣기·말하기의 영역에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둘째, 읽기 영역에서는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읽어 내는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읽기의 가치와 즐거움을 아는 능동적인 독자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셋째, 쓰기 영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글을 쓰는 능력을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들이 교과서에서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각 단원 마다의 제재를 알아본다.

우선 현재 중등 교과서에서는 어떠한 구성으로 전반적인 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천재교육 중등교과 ‘국어1-1’을 살펴보았다. 한 학기에 이루어지는 단원은 총 4단원으로 꾸려져 있었으며, 각 단원마다 세부적으로 두 가지의 소단원이 나누어져 있었다. 소단원에는 청소년들이 익혀야 할 학습 목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천재교육의 ‘국어1-1’의 단원과 학습목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03. 천재교육(노미숙 저) 국어1-1 단원 및 학습목표]

단원	소단원	학습 목표
1. 새로운 시작	시의 아름다움	시에 나타난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

22) 천재교육의 교과서 점유율은 2020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초등 교과서는 26.8%, 중등 교과서는 23.0%, 고등 교과서는 18.7%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천재교육 사이트에서 밝히고 있다.

		고 생산할 수 있다.
	산문의 향기	산문에 나타난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다.
2. 세상과 함께 자라는 꿈	자료 찾으며 책 읽기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을 수 있다.
	통일성 있게 글쓰기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다.
3. 언어랑 국어랑 놀자	언어의 본질과 국어생활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 말의 아홉 품사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4. 더불어 살아가기	문학과 갈등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토의하기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천재교육 ‘국어1-1’에서는 청소년들이 국어교육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습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그 제재로도 시와 산문, 노래 가사, 소설, 일반 자료, 등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 이외의 매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단원의 마무리에 ‘선택학습’란을 만들고 단원의 주제와 이어지는 내용의 제재를 실어서 심화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고 있었다. 문학작품의 구성들도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품고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작품이 많았다. 그 예로 이오덕의 <뽕>, 양귀자의 <사막을 같이 가는 벼>, 현덕의 <하늘은 맑건만> 등이 있었다.

1학기에 이루어지는 국어 교과서는 문학으로 시작하면서 학습자들이 국어 교육

을 재미있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서정적 작품들로 다루고 있었다. 문학 작품이 있는 단원에서는 주로 읽기 학습과 감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단원에 들어서면 서부터는 일상생활에서 국어가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매체 활용으로 확장되었다. 매체 속에서 글을 읽고 정보를 얻으며 정보 정리를 위한 쓰기 활동이 동행된다. 3단원에서는 언어의 본질에 대해 배우고, 국어의 품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법을 배우게 된다. 4단원에서는 다시 문학작품을 제재로 사용하며 1단원보다 심화된 주제로 변형된다. 1단원에서 학습자 개인의 감상에만 집중된 문학교육이 이루어진다면, 4단원에서는 개인을 넘어서서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다룬 주제로 확장된다. 그리고 개인의 감상에서만 머물렀던 문학교육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토의활동이 추가된다. 이어서 천재교육의 ‘국어1-2’의 단원과 학습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04. 천재교육(노미숙 저) 국어1-2 단원 및 학습목표]

단원	소단원	학습목표
1. 함께 성장하는 우리	나를 키우는 문학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삶이 담긴 글쓰기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쓸 수 있다.
2. 소통으로 여는 세상	면담하기	목적에 맞게 질문을 준비하여 면담할 수 있다.
	매체 특성에 맞게 표현하기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
3. 능동적인 언어생활	예측하며 읽기	독자의 배경지식,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을 수 있다.

4. 생활 속의 글과 표현	요약하며 읽기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상황에 맞는 어휘와 표현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할 수 있다.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천재교육 ‘국어1-2’에서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학습목표와 양질의 작품들로 국어 교과서가 꾸려져 있었다. 이를 <2015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에 맞춰서 분류했을 때, 읽기의 비중이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쓰기, 다음으로 듣기·말하기의 순서로 나타났다. 청소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읽기 텍스트로 이해가 먼저 이루어진 후, 본인의 생각과 글을 생산해내는 쓰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타인과 소통하며 생각을 확장하는 듣기·말하기 순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학습에 탁월할 것이다.

이렇게 중등교육 국어 교과서를 검토해 본 결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잘 구성된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재는 적었다. 또한 영웅 서사와 같이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인물에게 동일시를 느끼며 스스로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을 만한 인물 서사도 부족했다.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인 4단원의 대단원 제목도 ‘더불어 살아가기’인 점과 ‘문학과 갈등’을 학습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과도 함께하는 문화교육의 주제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현덕의 <하늘의 맑건만>의 경우는 갈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개인 내면의 양심으로부터 오는 갈등과 바깥 인물과의 갈등 정도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더불어 선택학습에서 사계절 선녀 ‘오늘이’ 설화 정도를 제외하면, 고전 서사도 제재로 드러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천재교육 ‘국어 1-1’의 4단원 ‘더불어 살아가기’에서 ‘문학과 갈등’ 단원과 ‘국어 1-2’의 1단원 ‘함께 성장하는 우리’에서 ‘나를 키우는 문학’ 단원이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교육적 흥미와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았다.

이 두 단원은 문학 단원으로 우리 국어문화를 잘 보여줄 수 있을뿐더러 ‘나’라는 개인에서 더 나아가 ‘우리’까지 어우르는 뚜렷한 주제의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학습 단원이 된다.

따라서 ‘국어 1-1’ 4단원의 ‘더불어 살아가기’와 ‘국어 1-2’ 1단원의 ‘나를 키우는 문학’의 주제의 핵심어인 갈등 극복과 자아 성찰의 내용으로 한국 문화교육의 한 부분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한국 문화교육 재구성의 제재는 중등교육 학습자라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았을 <홍길동전>이라는 텍스트로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홍길동전>의 완판본 36장을 기준으로 두었으며<sup>23)</sup>, <홍길동전>을 텍스트로 선정한 그 이유는 네 가지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홍길동전>은 교재에 자주 사용되는 작품으로 친숙하기 때문이다.

영웅 서사를 다루고 있는 한국 고전문학은 다양하다. <주몽신화>, <바리데기>, <박씨전>, <조웅전>, <유충렬전> 등등 여러 작품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도 <홍길동전>은 최근까지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재로 쓰이고 각색이 되기도 하며 위상을 이어오고 있다. 친숙함은 접근성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선정 이유가 된다. 또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경우 비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어렸을 적부터 접하였기에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문화적 지식도 교과 활동으로 접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도 잦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낯설어 하는 새로운 텍스트보다도, 다양한 매체로 설명할 수 있고, 또래 친구들이 알고 있어서 흥미를 가지기 쉬운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청소년이 읽어내기에 적합한 길이의 텍스트를 지녔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발행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에 따르면,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으로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읽어 내는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읽기의 가치와 즐거움을 아는 능동적인 독자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정하고 있다. <홍길동전>은 청소년들이 읽기에 적당한 길이를 지녔으며 끝까지 읽음으로써 성취감과 독서 능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성취감의 경험은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부족했을 국어 문화 교육 측면에서도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다.

23) 필요에 따라 <홍길동전> 경판본 24장을 활용한다.

세 번째로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고 현재 사회 문제에도 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길동전>은 신분 차별로 인해 소외 받던 홍길동의 삶을 영웅 서사로 보여준 작품이다. <홍길동전>의 배경인 조선시대에는 신분 계급이 존재하여 서자 출신이었던 길동이 받는 차별을 보여주지만, 신분 계급이 사라진 오늘날에는 인종과 국가적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다문화 가족과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와 현재의 대입 주체는 달라졌지만, 얼마든지 현재 사회 문제에도 응용 시킬 수 있는 보편적 주제가 담겼다. 더하여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잘 드러나는데, 높은 신분의 아버지와 낮은 신분의 어머니의 혈통을 각각 물려받은 탓에 어디에도 잘 어울리기 어려워하는 길동의 모습은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상황도 생각해보게 만든다. 이렇듯 사유를 필요케 하는 주제 의식과 문제를 담고 있기에 <홍길동전>은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좋다.

네 번째로 문화 요소를 적절히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홍길동전>에는 과거 조선시대의 문화 요소들이 잘 드러난다. 이러한 문화 요소는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또한 고전문학 작품에 담긴 문화요소들은 우리의 보편적 정서와 가치관을 깊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문화교육의 제재로도 적합하다. 무엇보다도 <홍길동전>은 영웅 서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영웅은 어떻게 위기의 순간을 이겨 나아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문화 요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때, 과거의 문화의 잔재와 현재의 변화되거나 되어가고 있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즉, 문화 요소를 알게 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질 수 있다.

### Ⅲ. <홍길동전>에 나타난 문화 요소

#### 1. 영웅의 일대기 구조

첫 번째로 <홍길동전>에서 짚어 볼 문화 요소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이다.

한국 문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웅의 일대기 기틀은 고대 신화에서 보이는 영웅의 일생과 닮아있다. 그 시작점은 <주몽신화>로 볼 수 있다. <주몽신화>는 활을 잘 쏘아서 주몽이라고 불리었던 고구려 동명왕의 탄생신화이자 건국신화를 말한다. <주몽신화>는 설화이기 때문에 구비적 특성에 의해서 조금씩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게 전해지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고려시대 중기의 이규보가 기록한 『동국이상국집』의 「동명왕편」을 기준으로 두고자 한다. 「동명왕편」을 이용하여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크게 7가지의 큰 특징으로 나누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영웅은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몽은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와 수신의 딸인 유화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신의 자식이며, 그는 신의 자손이다. 그의 이러한 가족관계는 고귀한 혈통이 이어진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영웅의 출생은 기이하다는 것이다.

주몽은 일반적인 인간의 출생과는 달랐다. 유화는 해모수가 자신을 버려두고 승천한 뒤 어느 날에 햇빛이 자신의 몸을 쬐으며 비추었는데 그러자 배가 불러오며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유화는 왼편 겨드랑이로 한 알을 낳았다. 주몽은 그 알을 깨고 탄생한다.

세 번째로 영웅은 어려서부터 혼자 남겨져 고난에 처한다는 것이다.

주몽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환영 받지 못했다. 자신의 아버지인 해모수가 유화를 남겨 두고 하늘로 떠났기 때문이다. 유화는 금와왕에 의해 거둬지게 되는데, 유화가 알을 낳자 이를 이상히 여긴 금와왕은 알을 말들이 있는 마구간에 버리라고 명한다. 말들이 알을 해치지 않고 피하자 나중에는 깊은 산에 내다버리라고 한다.

네 번째로 영웅은 자신의 고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를 만난다는 것

이다.

유화가 낳은 알이 마구간에 버려졌을 때, 말들은 그 알을 밟거나 깨트리는 대신에 알을 피하였으며, 알이 산 속에 버려졌을 때는 여러 짐승들이 공격하지 않고 알을 품어주며 보호하였다. 주몽은 여러 번 버려지고 혼자 남겨졌지만, 자신을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다.

다섯 번째로 영웅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몽은 태어나서부터 활 솜씨가 좋아서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다고 한다.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주몽’이라고 불렀다 하여 동명왕은 주몽이라고도 불린다.

여섯 번째로 영웅은 성장하면서 계속하여 고난이 반복된다.

금와왕은 아들이 일곱 있었는데, 주몽은 이들과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뛰어난 사냥 실력을 갖추었던 주몽을 시기한 일곱 왕자들이 질투심 때문에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주몽은 소외 받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번 해침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영웅은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는 것이다.

주몽은 작고 큰 고난이 반복되지만 굴하지 않고 단계를 넘어선다. 그는 그 모든 것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 뜻을 펼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모습을 가만 둘 리 없는 왕자들은 주몽을 추격한다. 그가 넓은 강으로 인한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자신은 천제와 하백의 손이며 추격을 피해 이곳에 이르렀으니 도와 달라고 소리치며 강을 활로 내리친다.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서 그가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주어 위기를 모면한다. 이때도 물고기와 자라라는 형태로 영웅을 돕는 조력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물고기와 자라로 만들어진 다리는 주몽을 쫓는 왕실의 병사들이 도착하자 이내 사라진다. 무사히 위기를 극복한 주몽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부터 벗어나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곳의 왕이 된다.

이렇듯 <주몽신화>는 한국 고전문학 속 영웅의 일대기를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주몽신화>와 같은 영웅의 일대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고난 극복 과정에 있다. 영웅의 일대기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영웅은 어떠한 고

난도 극복해서 뜻하는 바를 성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성장기에 접어든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지금 영웅의 일대기 구조 중 고난과 시련을 겪는 단계와 맞물려 있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도 부모로부터 소중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외 받고 있다. 영웅의 일대기의 특징처럼 반복되는 고난 속에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잃기도 한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그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것은 주인공에게 이입하여 스스로도 고난과 시련의 극복 의지를 길러내고 희망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점이다. 이것은 라깡이 설명한 동일시<sup>24)</sup> 개념과 연관이 있다. 라깡이 설명한 동일시(Identification) 개념은 이미지 안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이미지로 전유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작품 속 인물과 스스로를 동일시 여기게 될 때 고난 극복 의지를 심어줄 수 있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영웅 서사 속 영웅의 일대기를 파악하면서 인물을 자신의 이미지와 상정하고 문제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해 내는 힘을 기르게 될 것이다.

<홍길동전>은 앞서 <주몽신화>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7가지 특징으로 나타난 영웅의 일대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홍길동전>의 영웅 서사를 영웅의 일대기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05, <홍길동전>에 나타난 영웅의 일대기]

영웅의 일대기 특징	줄거리
고귀한 혈통	홍판서가 용이 나오는 태몽을 꾸고 태어난 아이. 명문가 집안인 홍판서의 아들로 태어남.
기이한 출생	정실부인의 자식이 아닌 집안의 종 춘섬과 홍 판서 사이의 서자로 태어남. 길동이 태어나던 날 방에 오색구름이 영롱하며 향기가 기이하게 남.

24) 딜런 에반스(1998), 『라깡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pp.112-114.

혼자 남겨져 고난에 처함	신분 때문에 집안의 이곳저곳에서도 어울리지 못함. 시기와 질투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 죽을 수 있는 위기로부터 가출.
조력자 만남	고난을 함께 헤쳐 나갈 활빈당 구성원을 만남.
탁월한 능력 가짐	활빈당의 당수가 되는 과정에서 도술을 활용하여 리더십을 발휘함.
고난의 반복	국가와의 갈등과 충돌이 반복됨. 가족과 화합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됨. 길동이 깊이 섬겼으나 모시지 못한 아버지가 돌아가심.
위대한 업적 이룸	활빈당의 구성원들이 단순 도적이 아닌 의적으로 거듭남으로써 스스로의 성장을 이룸. 조선을 떠나 울도국을 정벌하고 그곳의 왕이 됨.

홍길동은 홍판서가 어느 날 용이 나타나는 비범한 태몽을 꾸고 집안의 종 춘삼과 잠자리를 가져 낳게 된 아이이다. 길동은 서자 태생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며 집안에서는 천한 놈이라며 소외 받으며 자란다. 게다가 홍판서가 길동을 아끼는 것을 시기했던 홍판서의 애첩 초냥은 길동을 죽이기 위해 무녀와 꾀를 도모하고 자객을 불러 길동을 죽이려 들기까지 한다. 하지만 길동은 스스로 갈고 닦은 도술에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이 위기에 서 모면한다. 집안에서 자신의 목숨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길동은 출가하게 되고, 이후 도적들의 집합체인 활빈당의 당수가 되어 탐관오리들이 빼앗은 재물들을 본래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도적질을 하게 된다. 뛰어난 도술 실력 덕분에 길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출몰하여 일을 저지르고, 이러한 길동을 잡고자 온 나라가 들썩인다. 길동은 자신에게 병조판서를 하사하면 스스로 잡힐 것을 약속하고 왕이 길동에게 약조대로 관직을 내려주자 그 후로는 숨어서 조용히 지낸다. 그리고 3년 뒤 조선 땅을 벗어나 울도국으로 도달하여 그곳을 정벌하고 왕이 된다. 길동은 자신의 아내와 그곳에서 백년해로 하다가 삶을 마친다.

위와 같이 <홍길동전>은 고전소설의 영웅 서사 중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흥미롭게 접근하기에 좋은 내용들을 갖추고 있다. 홍길동이라는 인물은 신화적 인물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주몽신화>의 주몽은 대표적인 신화적 인물로 고난과 위기의 순간마다 그를 도와주는 초인적인 힘들이 나타난다. 마치 그가 신의 자손임을 보여주는 장치와도 같다. 하지만 홍길동은 태어날 때부터 용모가 빼어나고 기품이 있으며 총명한 아이라고는 하나, 길동을 돕기 위한 외부적인 비범한 힘들이 때맞춰 발현되지 않는다. 길동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학문에 정진하고 도술을 익혀 살아남는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이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빠져나온다. 길동은 이렇듯 잠재 되어 있었던 능력을 끌어 올리고 활용할 줄 알며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극복할 줄 아는 인물로 거듭난다. 바로 이 점이 고난을 극복해야 할 위치에 놓여 있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역량이자 자질이다.

## 2. 신분 제도의 모순

두 번째로 <홍길동전>에서 짚어 볼 문화 요소는 ‘신분 제도의 모순’이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서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 서자는 양반과 양민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일컫는다. 이 적서차별은 <홍길동전>의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는 핵심이다. 만약 홍길동이 이러한 차별을 겪지 않거나 느끼지 못했다면 이 이야기는 시작될 수 없었을 것이다. 소설 속에 드러난 적서차별은 한 개인의 사적인 이유로 시작된 차별보다도 더 큰 범주인 사회적 차별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러한 <홍길동전>에서 드러나는 차별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홍길동전>의 첫머리에서는 ‘조선국 세종대왕께서 즉위하신 지 십오 년 되는 해’라고 시대적 배경을 명시하고 있다.<sup>25)</sup> 과거 조선시대는 왕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던 왕권국가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조선시대의 왕족 아래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 되는 신분이 존재했다.

25) <홍길동전> 경판 24장본에서도 ‘조선조 세종대왕 시절에’라고 밝히고 있다.

[표06, 조선시대 신분제]

신분 구분		직업 구분
양인	양반	문·무반
	중인	향리, 서얼, 기술관
	상민	농민, 상인, 수공업자
천인	천민	노비, 백정, 무당, 광대, 창기

조선시대 신분제는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었는데, 양인 안에서는 또 양반, 중인, 상민으로 구분되었다. 일반 백성들은 중인과 상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양반은 권력과 세력을 가진 특권 계층이었다. 반면에 천민들은 신분사회에서는 가장 천대를 받던 신분이었다.

홍길동의 아버지로 나오는 홍판서는 ‘판서’라는 직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의 으뜸 벼슬을 맡고 있는 높은 신분의 인물이다. 이러한 양반들은 집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고 있는 종들이 있었다. 홍길동의 어머니인 춘섬이 바로 홍판서의 집안에 귀속되어 잔심부름을 하던 몸종이다. 그리고 홍길동은 조선시대 신분 중 가장 높은 신분에 해당하는 아버지와 양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이다.

조선시대에는 종모법에 따라 자식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신분을 물려받았다. 따라서 홍길동은 아버지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은 어머니를 따라 낮은 신분이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홍판서도 처음부터 못내 아쉬워한다. 홍길동이 크게 될 인물일 줄 알았으나 신분제에 갇힐 것을 진즉에 우려했기 때문이다. 신분 차이로 인하여 홍길동은 능력이 있는 아이였음에도 제 뜻을 마음껏 펼치지 못했으며, 아버지가 같은 형제들과도 나란히 어울릴 수 없는 환경이었다. 여기서 <홍길동전>의 적서차별 문제를 분명히 드러내는 대목이 나온다.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함에 원통함을 느끼며 대성통곡 하는 장면이다. 자신의 능력을 펼쳐서 병조판서 자리에 올라 상장군이 되지 못할 바에는 산중에 들어가 속세를 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홍길동의 신분 상승에 대한 꿈은 소설의 중반에도 또다시 등장한다. 홍길동이 산

중에 들어가서 세상을 잊고 살겠다는 다짐과는 달리 활빈당을 이끌며 의적으로 거듭나고 있을 때, 이러한 홍길동의 신출귀몰한 모습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왕은 홍길동을 잡아들이고자 하지만 쉽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흥판서와 그의 형인 길현까지도 나서지만 홍길동은 도술을 부려 늘 자리를 벗어날 뿐이었다.

그때 사대문에 붙은 글에는 ‘홍길동의 평생 소원이 병조판서이오니 전하께서 하해 같은 은택으로 소신에게 병조판서의 직을 내려 주시면 신이 스스로 잡히겠사옵니다.’라는 내용이 공개된다. 결국 홍길동의 신분제도로 인한 사회적 차별 상황은 그의 오래된 원통함으로 작용한 것이다. 병조판서라는 직위가 신분제를 떠나서 한 인물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하사 받을 때 홍길동은 오랜 숙원과 염원을 해소하게 된다. 홍길동은 단순히 자신의 신분이 높아지기만을 바란 인물로 보이지는 않는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분제의 모순에 갇혀서 뜻하는 바를 펼치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으로 보인다. 홍길동의 뛰어난 재주를 인정하고 조정에 두고자 하는 왕의 선택으로 홍길동은 일으키던 소란을 모두 정리하고 조용히 잠적한다. 이후 홍길동은 병조판서의 신분에 대한 만족에서 더 나아가 조선을 떠나 울도국이라는 한 나라의 왕으로까지 성장한다는 점을 볼 때, 신분제 사회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가능성을 펼쳤을 것을 보여준다.

<홍길동전>에서 작용하는 신분제로 인한 차별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홍길동의 갈등 해소가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제도로 자리 잡은 신분제와 그것을 철저히 따랐던 시대상을 이해할 때, 홍길동이라는 인물에 깊이 몰입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오늘날은 법적으로 규제하는 신분제도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여러 사람들에게 대한 오해와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도 그들의 가정 환경적 이유로 차별 받는 일이 빈번하다. 이렇듯 신분제도는 현재에 와서 다른 모습을 갖춘 채로 특정인의 삶을 규제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점이다. 홍길동은 스스로가 능력이 있고 큰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신분제로 인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삶을 원통히 여겼다. 홍길동은 신분제도 앞에서 조용히 수긍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로 능력을 마음껏 펼쳤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처음부터 뜻하고자 한 바를 이루어낸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조선시대 신분 제도의 모순

을 통해서 홍길동과 자신을 비교하며 오늘날 자신에게 주어진 무궁무진한 기회와 자유를 선택하는 일을 배울 수 있다. 더불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도안해낸 홍길동의 태도로부터 자신의 존재 이유와 쓰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다.

### 3. 가부장제적 시각

세 번째로 <홍길동전>에서 짚어 볼 문화 요소는 ‘가부장제적 시각’이다.

<홍길동전>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시대로, 이 시기에는 유교가 국가의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던 시기이다. 때문에 <홍길동전>에는 다양한 유교 문화의 모습들이 드러난다. 당시의 문화는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소설 속에 나타나는 유교 문화는 이질적이지 않게 다가오는 부분도 많다.

그중에서도 유교적 가부장제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가부장제는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족 구성원을 이끄는 형태를 말한다. 가부장제에 유교적 성격이 더해진 것인데, 본래 유교에서 중시하는 사상들인 ‘효’와 같은 개념들이 더해져서 가부장제를 더 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여자들은 정조를 지키며 가정에만 헌신해야 했으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도록 교육 받았다. 이러한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인해 남성 권력은 보다 강해졌으며, 아버지의 성씨를 물려받는 사회에서 남자들이 더 큰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남성이 힘을 가진 사회는 자연스럽게 남아선호사상으로도 이어진다.

남아선호사상은 가부장제적 시각에서는 지배적이었다. 유교에서 가부장제와 남아선호사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남존여비의 모습도 강해졌다. 유교에서는 조상들을 기리는 제사 의식을 행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제사를 이끄는 사람이 남성 가장이었다. 제사는 집안의 남자를 중심으로 대대로 물려졌기 때문에 가정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선호했다. 그 남자 아이만이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나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 아이의 경우는 ‘장손’이라고 불리며 귀하게 키웠다. 장손이 죽거나 일반적인 경우처럼 제사를 물려받지 못할 경우 그 다음 아들이 물려받는 식이었다. 자녀들도 철저한 위계질서 안에서 자신의 도리

를 다하는 것이 유교가 추구하던 가치였다.

<홍길동전>에서도 흥판서의 아이를 가진 촌섬이 중문 밖을 나가지 않고 행실을 바르게 하며 지냈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는 남성 권력에 대한 절대 복종의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홍길동전>의 주인공이 남자인 것도 하나의 예일 수 있다. 길동의 형 길현은 등장하지만, 여자 아이는 등장하지 않는 것도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그 당시의 사회상이 남성 중심이었던 것이 반영되었다.

남성 중심의 사회는 일부다처제의 성격도 나타난다. 신분이 높았던 ‘남자’ 흥판서는 정실부인 외에도 초남이라는 기생 출신 첩과 길동의 어머니인 촌섬도 첩으로 데리고 있다. 홍길동 역시도 제도에서 괴물 을동을 죽이고 인질로 잡힌 여자들을 구해줌으로써 세 부인을 맞이한다. 이것은 홍길동의 남성 권력이 신분제를 뛰어넘어 강해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제적 시각의 잔재는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으며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명절날 여전히 제사를 지내며, 이 제사는 대부분 집안의 가장 큰 어른 남자를 기준으로 모이고 진행이 된다. 이것은 모두 유교의 뜻을 중시했던 과거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모습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가부장제적 시각의 부정적인 모습을 타파하고 바꿔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자 아이만을 유별나게 차별했던 남아선호사상이나 강압적인 가부장제는 오늘날 특별한 이유 없이 세습되어 온 대로 편견을 형성하기도 한다. 조상들을 기리기 위한 제사도 허례허식이 커진 점과 제사상을 차리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력이 무조건적으로 투입되는 등 본질에서 벗어나 부정적인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과거 문화와 오늘날 문화를 비교하며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교육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게 되고 수용하게 되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의 세습이 잘못된 편견과 차별을 일으키는지도 배울 수 있다. 이렇듯 문화교육을 통해 특정 집단에 내재된 현상들을 깨달을 수 있을 때,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조금 더 사회를 이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화 요소들은 알게 되는 일에서 더 나아가서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함께 문화를 일궈 나아가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려면 문화교육은 특정 문화를 알려주고 무조건적인 이해와

수용을 바라는 태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한국 문화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재 학습활동을 정답이 정해진 문제풀이의 활동보다도 개인의 경험과 창의성을 녹여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 IV. <홍길동전>을 활용한 문화교육 학습활동 재구성

##### 1. 읽기 영역

<홍길동전>을 활용하여 한국 문화교육 학습활동을 재구성 할 때, 국어의 읽기·쓰기·말하기·듣기의 4가지 영역 구분은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학습 한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먼저 읽기 영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읽기 영역에서는 <홍길동전>의 문화 요소 중 특히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집중하여 녹여내고자 한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인물과의 동일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작품에 몰입해야 한다. 작품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읽기’ 영역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며 그 이후에 다른 활동으로 파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길동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주장하는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인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읽어 내는 목표에 부합한 적당한 길이의 텍스트를 지니고 있으며 영웅 서사가 다채롭게 꾸려져 있다. 또한 <홍길동전>은 작품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나 개인의 문제 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교육과정이 바뀌어 왔음에도 꾸준히 교과서에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내면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모두 담고 있으며 스스로의 능력으로 위기를 해쳐 나가 는 영웅의 모습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기 학습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홍길동전>은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과 더불어 또래 중등 교육 학습자들의 읽기 교육자료로써 사용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문화교육 단원으로써의 <홍길동전> 읽기의 학습 목표는 ‘<홍길동전>을 읽고 과거와 오늘날의 시대적·문화적 차이를 파악할 줄 알고, 주인공의 일대기를 요약할 수 있다.’로 둔다. 읽기 역량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목표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홍길동전>의 텍스트 전체를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재에는 <홍길동전>의 본문이 모두 실려야 한다. 교재에서 전문을 다 담지 못

할 경우 부록으로 준비되거나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책이 구비되어야 한다. 영웅의 일대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영웅 서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홍길동전>의 어떤 이본을 선택하든 전문을 읽는 활동은 필수적이다. <홍길동전>의 내용적인 차이와 별개로 과거의 작품들이 왜 다양한 형태의 이본으로 남아있는지에 대한 시대적·문화적인 모습을 짚어주는 것은 고전 문학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시 언급을 해주도록 한다.

두 번째로 읽기 영역은 수업시간에 개인적으로 읽기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사의 강의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냄으로써 완독에 대한 성취감도 이룰 수 있고 무엇보다 개개인의 속도로 작품을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작품의 줄거리 파악은 모든 학습 활동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행하되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는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몰입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읽기 활동 시간을 가진 후에는 교사와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소리 내어 읽기를 진행하며 교사는 틈틈이 부가적인 설명을 더해 주어야 한다. 또한 개인적 읽기 활동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모르는 단어나 어휘가 있는지 되물어 보고 학습자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세 번째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홍길동전>의 줄거리를 파악하고 영웅 서사를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설정한 읽기 영역 성취 목표 두 가지 모두 결론적으로 세 번째 목표를 잘 수행해 내기 위함이다.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줄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읽기 활동의 전부라고 여겨질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이다. <홍길동전>에서 드러나는 영웅 서사를 읽어내고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정리하여 긴 서사가 간단히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해 주어야 한다. 긴 글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복잡한 문제를 간소화 시키는 연습이 가능하다. 따라서 읽기 활동 후 이어지는 교재의 ‘학습활동’에서 영웅의 일대기를 정리하고 텍스트의 줄거리를 요약하는 활동을 넣어준다. 학습활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07, <홍길동전>을 활용한 읽기 영역 학습활동1]

◎ <홍길동전>을 읽고 영웅의 일대기적 특징을 정리하고 줄거리를 요약해 보자.

구분	영웅의 일대기 특징	줄거리 요약
1		
2		
3		
4		
5		
6		
7		

위의 표와 같이 영웅의 일대기를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함으로써 서사의 흐름을 쉽게 파악하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홍길동전> 이외의 영웅소설을 접근할 때 영웅의 일대기 구조의 특징으로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학습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영웅의 일대기를 배우는 활동은 심화 활동으로 나아가서 학습자 개개인과 그 주변으로 파생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 학습활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08, <홍길동전>을 활용한 읽기 영역 학습활동2]

◎ 부모님의 삶을 영웅의 일대기적 특징으로 구성해 보자.

일대기적 구분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
혈통		
출생		
능력		
독립		
조력자		
고난		
업적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기틀을 삼아 부모님의 일대기적 특징을 정리해 보는 것이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 특징과 마찬가지로 7단계로 설정을 한다. 앞서 살펴본 바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비다문화 가족 청소년들과 비교할 때 적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위의 학습활동과 같이 한 인물의 삶을 정리해 보는 활동을 통해 부모와의 대화 시간을 늘리고 부모의 문화 기반을 깨달을 수 있는 활동으로 구상해 보았다. 이러한 학습활동의 장점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 학습자들이 정답에 연연하지 않고 문제를 작성해 나갈 수 있다. 이 활동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다시 잘 파악하게 되는 것과 더불어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될 수도 있다. 나아가서 심화학습으로 ‘나’의 일대기적 특징을 구성해 보는 방법으로 연결지을 수도 있다.

네 번째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홍길동전>의 텍스트를 읽을 때는 과거의 문화적·시대적 모습 등을 읽어내고 오늘날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에서는 제시된 텍스트 옆에 학습자들의 읽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작은 물음표 문항이 존재한다. 이 물음표 문항은 작품을 읽을 때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된다. 물음표 문항은 인물의 감정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거나 비유 표현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도와준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교육의 물음표 문항으로는 학습 한국어 향상 외의 갈등 극복과 자아성찰적 질문도 추가해 보았다. 작품을 통해 보다 풍성하게 <홍길동전>의 텍스트 읽기의 도움을 줄 물음표 문항을 꾸려보면 다음과 같다.<sup>26)</sup>

[표09. <홍길동전>을 활용한 읽기 영역 학습활동3]

구분	물음표 문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곳에 밑줄을 그어 보자.</li> <li>◎ 길동의 태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li> <li>◎ ‘나’의 태몽은 무엇이었는지 부모님께 여쭙어 보자.</li> <li>◎ 길동이 태어나던 날의 기이함은 어떻게 표현 되었는지 밑줄 그어 보자.</li> </ul>

26) <홍길동전> 완판 36장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 ◎ ‘나’의 탄생은 어땠는지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자.
- ◎ 활빈당의 장수가 되기 위해 길동이 보인 능력을 적어 보자.
- ◎ ‘나’였다면 어떻게 활빈당의 리더십을 보였을지 상상해 보자.
- ◎ 길동이 집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 왕이 길동을 잡아들이려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 ◎ ‘오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전을 찾아서 적어 보자.
- ◎ 내가 실천해 본 ‘오륜’ 중 한 가지 덕목을 말해 보자.
- ◎ 길동이 스스로 잡히겠다고 약조하며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무엇인지 적어 보자.
- ◎ 길동은 왜 ‘병조판서’에 집착하는 것인지 고민해 보자.
- ◎ 길동과 같이 ‘나’의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지 적어 보자.
- ◎ 길동이 을동을 죽이고 연계 된 것은 무엇인지 적어 보자.
- ◎ 길동이 정벌하고 왕이 된 나라의 이름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자.
- ◎ ...
- ◎
- ◎

물음표 문항은 학습자 스스로가 모두 답해내지 못하더라도 교사와 함께 생각하고 짚어보며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음표 문항은 학습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을 짚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읽기 활동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깊이 파고들 수도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또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읽기 활동을 구성해주기 위한 지시문이 되기도 한다. 물음표 문항을 잘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이 텍스트를 읽어 낼 때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물음표 문항으로 작품 속에 담긴 문화적·시대적 모습을 읽어냈다면 다음 활동에서는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오늘날과의 비교는 단순히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더불어 현재의 ‘나’로 여러 번 대입해 보며 과거와 오늘날의 문화 간극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제시된 <홍길동전>이 작품 안에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

해하는 것에서만 머물렀다면, 앞으로의 한국 문화교육 학습활동에서는 오늘날에 고전문학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영역으로도 확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확장될 수 있을 때, 고전문학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보편적 문화를 담고 있다는 본래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 읽기 영역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완성되었다면, 작품을 오늘날 실제와 비교할 수 있는 문항으로 꾸려보면 다음과 같다.

[표10, <홍길동전>을 활용한 읽기 영역 학습활동4]

◎ 오늘날에도 ‘홍길동’과 같은 인물이 존재할까? 우리 주변의 영웅은 누가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영웅을 소개해 보자.

구분	우리 주변의 영웅	
내용	홍길동과의 공통점	홍길동과의 차이점
	◎ ◎	◎ ◎

이 활동에서는 학습자 자신이 들어보거나 생각하는 영웅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이러한 활동으로 학습자들은 시대와 대상, 형태만 바뀌었을 뿐 오늘날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마주하고 있는 영웅의 모습에 대해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 형태만 달라졌을 뿐 ‘홍길동’이라는 인물도 오늘날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 스스로도 해당할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 학습자들이 작품 속 인물과 동일시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홍길동전>에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자신의 모습을 동일시로 투영할 인물은 주인공인 ‘홍길동’이다. 홍길동은 태어날 때부터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서 성장한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홍길동에게 빠르게 이입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도 자신의 개인적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소외 받거나 차별 받고는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홍길동이라는 주인공은 스스로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떠올려 보며, 오늘날의 ‘나’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비교해보는 학습활동을 넣어 본다.

[표11, <홍길동전>을 활용한 읽기 영역 학습활동5]

구분	비교해 보기 질문 (만약에 ...)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조선시대의 서자로 태어난다면?</li> <li>◎ 홍길동이 내 주변의 친구라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li> <li>◎ ...</li> <li>◎</li> </ul>

이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한정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 학습자들은 ‘만약에’라는 가정을 넣어서 과거와 현재를 상상해본다. 인물에 이입하되 학습자 본인의 모습을 도출하도록 이끈다.

지금까지 제시한 다섯 가지의 읽기 영역의 목표를 제대로 수행했을 경우, 학습자들이 <홍길동전>이라는 고전문학 작품을 배우게 된 것과 더불어 <홍길동전>의 문화 요소인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대해서도 파악하게 되었다. 과거 조선시대의 한국의 시대적·문화적인 모습까지도 알게 되었다. 읽기 영역에서는 학습자들이 한국의 고전문학 중 영웅 소설 <홍길동전>의 내용을 배우면서 국어 문학 작품으로서의 문화 교육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영웅의 일대기를 파악해내면서 오늘날의 ‘나’와 주변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 2. 쓰기 영역

읽기 교육의 다음 단계로는 쓰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읽기 교육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학습하였다면, 쓰기 교육을 통해 개인의 생각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쓰기 교육에서는 <홍길동전>의 문화 요소 중 신분 제도의 모순에 집중하여 학습활동에 녹여내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3학년 쓰기 영역의 목표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에 따라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글을 쓰는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하고,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쓰기 영역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설명하는 글쓰기, 보고서 쓰기, 주장하는 글쓰기,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쓰기, 등이 있으며 글쓰기 안에서 내용을 선정하고 통일성을 갖추며 개성적인 표현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문화교육 단원으로써의 쓰기 영역의 학습 목표는 ‘<홍길동전>에 나타난 인물의 심정에 대입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로 둔다. 쓰기 영역의 역량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설정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글쓰기의 기본 원리와 규칙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글쓰기를 많이 접해 보지 않은 청소년 학습자들이라면 무엇을 써야 할지 빈 종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나 한국어에 서툰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글쓰기가 재능의 영역이라 여기고 지레짐작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글쓰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글쓰기에도 큰 틀과 규칙이 있고 그에 맞게 하나씩 작성해 나아갈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해야 한다.

[표12. 쓰기 영역 글쓰기 지침]

구분	글쓰기 주의점
글의 구조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의 유형 설정하기 (감상문, 주장하는 글, 설득하는 글, ... 등)</li> <li>◎ 주제 선정 후 두괄식과 미괄식 표현법 선택하기</li> <li>◎ 서론, 본론, 결론으로 크게 세 문단 이상으로 구성하기</li> <li>◎ 인과관계를 서술할 때 쓰는 연결어 알아보기</li> <li>◎ 한 문단을 작성할 때는 들여쓰기</li> <li>◎ 올바른 문장부호 사용하기</li> <li>◎ ...</li> </ul>
표현법	◎ 유행어, 줄임말, 은어, 비속어, 등 올바르지 않은 국어 표현 피하기

- ◎ 미사여구 사용 줄이기
- ◎ 잦은 형용사 서술어는 피하기
- ◎ 같은 주어·목적어·서술어를 반복하지 않기
- ◎ ...

먼저 글쓰기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틀을 가지고 글쓰기를 진행 시키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글의 서론을 시작하는 방법과 본론과 연결 하는 방법, 결론을 짓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글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앞에 두는 두괄식과 뒤에 두는 미괄식에 대해 알려주고 본인이 어느 쪽을 선택해서 글로 표현할 것인지 고민할 시간을 준다. 인과관계에 대해 표현할 때는 ‘왜냐하면’으로 연결한 후 수사로 이어지는 까닭 나열의 서술 방식을 알려주어 체계적인 글쓰기가 이루어지도록 알려준다. 글을 마무리 지을 때는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 갈래의 의견이나 생각으로 수렴하도록 한다.

글쓰기의 구조를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로는 피해야 할 표현들과 다듬어야 할 표현들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전자기기의 사용이 자유로운 청소년들은 인터넷 용어에 익숙해져 있고 이러한 표현들을 또래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새로운 유행어부터 줄임말과 은어, 그리고 비속어까지 청소년들에게는 익숙해서 몰랐던 올바른 국어 표현이 아닌 단어나 어휘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표현의 예시를 미리 짚어주며 사용을 지양할 것을 언급해 주어야 한다.

더하여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 아니더라도 지나친 형용사 표현이나 같은 단어의 반복은 피하도록 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문장과 표현이 단조로워지며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게 되기 때문이다. 표현이 다채롭고 풍성하면서 가독성이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단어나 어휘의 올바른 선택은 물론이고 다양한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두 번째로 수업 시간 내 쓰기 활동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다 작성하지 못한 글은 숙제로 완성해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글쓰기 과제에 관하여서는 교사의 직접적인 첨삭과 피드백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쓰기 영역은 수업 시간 내에 완벽히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이

런 이유로 과제로 대체된다면 학습자들은 쓰기에 앞서 시작을 망설이거나 교사의 빠른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 완성된 글을 써내지 못하더라도 수업시간에 직접 쓰기 활동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마무리 짓지 못한 글은 숙제로 해결해 오며, 교사는 직접 검사하며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로 교사는 글쓰기 주제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선택하여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때의 주제는 소설을 구성하는 3요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정한다. 특히 쓰기 활동인 신분 제도의 모순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차별’의 문제에 대해 녹여내 본다. <홍길동전>의 주제에서 현재의 ‘나’로까지 주제의식을 확장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되, 학습자들이 고전문학 작품으로서의 <홍길동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화적·시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인물, 배경, 사건에 맞추어서 구분 지어서 시각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준다. 학습자들이 주어진 주제를 자유롭게 고르도록 하되, 한 가지 주제나 특정 주제로만 선택되지 않도록 방안을 둔다. 너무 많은 선택지는 오히려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교사로 인한 적당한 타의성이 들어가도록 한다.

[표13, <홍길동전>을 활용한 쓰기 영역 학습활동1]

구분	글쓰기 과제	
주제	인물	◎ 내가 작품 속 홍길동이라면 적서차별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 ...
	배경	시간적 ◎ 신분 제도가 사라진 오늘날의 차별에 대해 내 생각을 적어보자. (젠더 차별, 인종 차별, 사회적 약자 차별 등) ◎ ...
		공간적 ◎ 내가 왕이라면 울도국의 규율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 ...
	사건	◎ 내가 왕이라면 ‘병조판서’를 내리는 방법 외에 홍길동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 ◎ ...
	나의 글쓰기	

무엇보다도 쓰기 영역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 수 있어야 하는데, 홍길동이라는 인물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글쓰기는 기존에도 자주 이루어지던 방식으로 이외에 인물에게 동일시를 느낀 학습자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을 녹여낼 수 있는 글쓰기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쓰기의 역량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더하여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고난을 극복한 과정을 다문화 가정 학습자는 어떻게 헤쳐 나갔는지, 또는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쓰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직면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네 번째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글쓰기 활동을 경험하도록 한다.

또한 쓰기 영역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쓰기 시간을 한번으로 한정해 두지 않고, 개인의 SNS에 일기 형식으로 고난 극복 일지와 같은 글쓰기를 특정 기간 동안 연재해 보는 방식의 매체 사용 글쓰기 수업으로 이어갈 수 있다. 같은 반 학습자의 친구들과 댓글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섬세하고 정확한 피드백에 관련해서는 평가의 가점을 부여한다면 학습자들의 적극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14. <홍길동전>을 활용한 쓰기 영역 학습활동2]

구분	SNS 글쓰기 목록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고난 극복 일기</li> <li>◎ &lt;홍길동전&gt;과 관련된 만화, 드라마, 영화, 음악, 등 감상문</li> <li>◎ 현대판 &lt;홍길동전&gt; 소설 연재</li> <li>◎ ...</li> </ul>

이러한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 외에도 SNS에서 이루어지는 또래문화를 경험하기에도 좋은 소재가 된다. 학습자들은 글을 쓰기 위해 주제에 이입하면서 동시에 인물에도 이입하게 되며 주인공 홍길동과의 동일시를 느껴보게 된다. 학습자들은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빌려 자신이 하고 싶은 생각과 말들을 표출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 활동에서 교사가 전달해야 할 주의점은 이미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청소년 학습자들이 온라인 예절을 잘 지키도록 당부해야 하는 점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글쓰기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 활동이 특정 매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쪽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의 자율적인 글쓰기 활동을 맡기되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심을 잡아 주어야 한다. 매체를 이용한 쓰기 활동에서 교사는 평가보다 감상과 생각 나누기 중심의 피드백을 전달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로 완성된 글을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하여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타인의 생각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글을 완성 짓고 나면 교사의 피드백 전달과 검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끼리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는 발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거나 서로의 글을 돌려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발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다음에서 이어질 말하기·듣기 영역으로의 연결이 되며, 타자의 글을 직접 읽어 보는 활동을 한다면 읽기 영역의 확장 교육이 된다. 이러한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자신의 한 가지 생각에 매몰되지 않기 위함이다. 학습자들이 <홍길동전>을 읽으면서 인물에 대해 동일시를 느끼게 되고 자신을 중심으로 대입하고 이 입하며 생각을 펼치게 된다. ‘나’의 생각을 가지는 일은 중요하지만, 앞으로 생각과 가치관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깨닫고 비판적 수용을 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쓰기 영역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 의견, 등을 정리하고 결론 지을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 여러 번 이루어지는 글쓰기 피드백 과정에서도 힘들지만 한 편의 글을 완성 짓는 성과를 만들어 내며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홍길동전>이라는 우리 고전문학 작품을 배우는 것으로써 이루어진 문화 교육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생산해내고 여러 매체로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 문화 교육이 확장되었다.

### 3. 말하기·듣기 영역

말하기·듣기의 교육은 읽기 영역과 쓰기 영역 다음의 최종적인 단계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정보를 읽고 지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천천히 풀어 보았다. 이렇듯 글로 표현하는 문자 언어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지만, 구어의 경우는 시간의 영향도 받을 뿐더러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수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말하기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말하기·듣기 영역은 <홍길동전>의 문화 요소 중 ‘가부장제적 시각’에 집중하여 풀어내고자 한다.

말하기와 듣기의 능력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주안점이다. 말하기와 듣기의 능력은 실생활에서 직접적이고 자주 쓰이는 역량이다. 말하기·듣기 역량에서는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항목을 중요하게 보았다. 따라서 말하기·듣기 영역의 학습목표로는 ‘<홍길동전>에 나타나는 문화적 배경과 인물들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다.’로 둔다. 말하기·듣기 영역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의 논리에 맞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기·듣기 영역에서 자유로운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발표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말하기 활동이 수업 내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토의’는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유로움의 범주가 넓으면 도리어 학습자들의 심도 있는 말하기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 그럼으로 개인의 생각을 가지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토론’의 형태로 말하기와 듣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그들을 중재하고 이끄는 사회자가 존재한다. 학습자들은 실제로 본인이 더 옳다고 생각되는 의견으로 치우치지 않고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양쪽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표15, <홍길동전>을 활용한 말하기·듣기 영역 학습활동1]

◎ 다음 토론 과제 중 하나를 골라 각각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토론해 보자.

구분	토론 과제	
주제	◎ 가부장제는 유지 되어야 할까? ◎ 제사를 비롯한 집안의 중대 사항은 장남이 도맡아야 할까? ◎ 이름의 ‘성’은 아버지의 성씨만을 물려 받아야 할까? ◎ ... ◎	
	찬성	반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학습자가 고르는 것이 아닌 교수자가 임의로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학습자들은 자신이 어떤 입장을 뽑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양쪽의 생각을 모두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게 된다. 토론 현장에서는 공감적 듣기의 자세를 보여야 하며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연습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과 더불어 서로 다른 문화도 소통하며 알아갈 수 있고 서로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두 번째로 토론 활동 안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토론에서 입장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고 해서 토론의 목적이 무조건적으로 본인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고수하는 게 아님을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토론은 논리적인 근거들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상대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감정에 공감할 줄 아는 듣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함을 배우는 장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홍길동전>의 역할극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대중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역할극은 학습자 구성원들이 모둠으로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각 모둠이 <홍길동전>에서 각색하고 싶은 부분을 새롭게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대중 앞에서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역할극 활동은 학습자들 간의 호흡을 맞추는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맡은 대사를 말해보는 과정에서 인물에게 대입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역할극의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는 대사 이외에도 구체적인 지시문을 작성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각 모둠별로 서로 다른 주제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보다 다채로운 말하기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듣기 활동을 하는 학습자들의 관심도 끌 수 있으며 집중력도 높일 수 있다.

[표16. <홍길동전>을 활용한 말하기·듣기 영역 학습활동2]

◎ 다음 역할극 과제 중 하나를 골라 시나리오를 새롭게 쓰고 발표해 보자.

구분	역할극 과제	
주제	◎ 활빈당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홍길동이 여자라면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 홍길동이 형 '길현'으로 태어났다면 무엇이 달랐을까?	
	◎ ...	
	◎	
	다시 쓰는 시나리오	
	상황	
	등장인물	

네 번째로 언어 폭력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어떤 형태의 말하기·듣기의 활동에서든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 주어야 하며 자신의 의견만을 고수하는 말하기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비판과 비하 발언은 삼가도록 주의한다. 말하기와 듣기 영역은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주안점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올바른 말하기·듣기 문화를 형성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좁혀 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지금까지 진행한 말하기·듣기 활동에서 타인의 말하기를 듣고 학습자 개인의 마음을 움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이 활동은 학습자들의 듣기 영역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면서 자신의 말하기 활동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최종적으로 <홍길동전>의 내용과 내 입장을 정리하며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듣기 영역의 활동들이 이루어졌을 때,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은 또래를 더불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한 인물에 머물렀던 동일시를 넘어서 타자의 입장도 생각하고 고려하게 되는 방향으로 생각이 확장된다.

## VI. 결론

지금까지 <홍길동전>을 활용하여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 학습 한국어 실력을 향상 시키고 긍정적인 정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 문화교육 학습활동을 재구성해 보았다.

제Ⅱ장에서 언론의 기사 자료와 여러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였다. ‘빅카인즈’를 통해 언론에 드러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장 최근 자료들을 참고하여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았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으며, 그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는 교육 문제로 연결되었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교육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한국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한국 문화교육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교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국어 교육의 대상과 목적이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서 또한 학습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중간자적 위치의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을 위한 심화적인 한국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 학습 한국어 실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도 여러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확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학습활동을 생각해 보았다.

학습활동의 구성안은 공교육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참고하였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비다문화 가족 청소년들로부터 낙인효과를 느끼지 않고 함께 문화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쓰이는 교재인 교과서의 학습활동 틀을 차용하여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과 더불어 비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함께 문화교육을 받아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사춘기 시기와 학업 심화 과정의 시기가 겹쳐지게 되는 중등교육 시

기의 학습자들이 문화 교육의 적기라고 여겼기 때문에 중학교 교과서를 기준으로 두었다. 그리고 중등교육 시기에 문화교육 텍스트로 적합한 <홍길동전>을 선정하여, 영웅 서사의 인물을 통해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고난을 극복할 의지와 힘을 얻고 긍정적 방향성을 가지기를 희망했다.

제Ⅲ장에서는 <홍길동전>에 나타난 문화 요소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두 번째로 신분 제도의 모순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 가부장제적 시각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문화 요소를 통해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이 선정을 바탕으로 제Ⅳ장에서는 한국 문화교육의 한 단원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듣기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홍길동전>을 활용한 학습활동을 재구성해 보았다. 읽기 영역에서는 학습활동을 구성할 때 앞서 살펴본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녹여내도록 하였다. 쓰기 영역에서는 신분 제도의 모순에 대해 스스로의 생각을 글쓰기로 표현해보는 학습활동을 구성해보았다. 말하기·듣기 영역에서는 가부장제적 시각에 대한 학습활동을 녹여내어 타인과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활동으로 꾸려보았다. 이러한 문화교육 학습활동을 통해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것을 희망했다. 그들이 앞으로의 삶에서 갈등을 겪을 때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자아 성찰을 하며 더 나은 미래로의 도약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영웅 서사는 그 자체로도 문학작품으로서 흥밋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고난에 처해 있는 모습이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영웅 서사의 인물들은 고난을 극복해내고 나아가기 때문이다. 문화교육의 필요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생각한다. 문화교육은 학습자 스스로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 많은 것을 강의하고 전달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들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을 위한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한 문화교육에 있어서 이 연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교육부(2023), <2023년 교육 기본 통계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통계청(2022), <2021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  
한국언론진흥재단(2022), <2022년 신문산업실태조사>.

### 2. 단행본

- 이규보 저·조현설 역(2019), 『동명왕편 -신화로 읽는 고구려의 건국 서사시-』,  
아카넷.  
조동일(2005),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조동일(2005),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한국고소설학회(2019), 『한국 고소설 강의』, 돌베개.  
허균 저·김탁환 역(2009), 『흥길동전』, 민음사.  
덜런 에반스(1998), 『라깡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필립 스미스(2008), 『문화 이론: 사회학적 접근』, 이학사.

### 3. 연구 논저

- 고정희(2015), 「고전문학의 지속가능성과 고전문학 교육」, 『한국한문학연구』  
No.57, 한국한문학회.  
김경희(2010),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의 문학 텍스트  
활용 방안 연구」, 『인문연구』No.58,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민라(2015),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전문학 교육 방법」, 『한국어교육연구』  
No.2, 한국어교육연구학회.  
김세현(2011),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교재의 한국어 발달 측면에서의 적  
합성: 초등학교 저학년의 언어 발달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화교

- 육』 Vol.5 No.2, 한국어문화교육학회.
- 김연권·노재윤(2010), 「국어교과에서의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Vol.1 No.3,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 김유미(2022),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소설 수록과 활용 방안: 일반목적 및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에 제재화된 작품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Vol.41, 돈암어문학회.
- 김창원(2008), 「문학 문화의 개념과 문학교육」, 『문학교육학』Vol.25, 한국문학교육학회.
- 문혜진(2009), 「고전문학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민(2015), 「다문화 시대의 고전문학을 활용한 융합교과교육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순·김유미(2022), 「한국어 교육에서의 고전 문학 활용 양상 분석 -교재에 제재화된 고전 산문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Vol.18 No.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박현주(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고전 텍스트 활용 교육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인석(2010), 「교육 텍스트로서의 <홍길동전>」, 『고전문학과 교육』Vol.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 손양숙(2021),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문학 작품 제시 양상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미영(2011), 「고전설화를 활용한 다문화가정의 한국문화교육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1), 「미디어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영웅탄생형 설화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Vol.2011 No.0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_\_\_\_\_ (2015), 「다문화교실에서의 한국문화교육 방안」, 『어문론집』Vol.63, 중앙어문학회.
- 안혜숙(2016), 「다문화시대를 위한 문화교육 교수학습 방법 탐구-중학교 국어교

- 과서의 고전 소설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어문학부』Vol.36,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 윤희원(2009), 「다문화 사회와 국어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Vol.34, 국어교육학회.
- 원진숙(2008), 「다문화 시대의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Vol.32, 국어교육학회.
- 이명현(2014), 「외국인의 한국문화 교육에서 고전소설의 가치와 학습 방향=<춘향전>,<심청전>,<흥부전>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No.17,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전철웅·우혜경(2011), 「고전문학을 활용한 중학교 다문화교육」, 『개신어문연구』, Vol.33, 개신어문학회.
- 조옥이·박석준(2011),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한국어문화 교육의 방안과 내용-교육 사례 예시를 통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Vol.3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주경아(2011), 「공교육에서의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중등학교의 다문화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승아(2022), 「코로나 시기 이후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 『용봉인문논총』No.61,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Abstract>

## **A Study on Korean Cultural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Using “Hong-Gildongjeon”**

This study aimed to propose a Korean cultural educa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who are learners in secondary education, using the literary work "Hong-Gildongjeon" (The Tale of Hong Gildong). Despite the increasing presence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in Korean society, they continue to face difficulties in social adaptation. Particularly, while they may have no significant issues in daily Korean language use, as the academic level increases, their understanding of learning Korean diminishes, leading to challenges.

The lack of proficiency in Korean not only diminishes interest in academics but also cascades into negative effects such as school maladjustment and social adaptation issues. These problems, initially stemming from a deficiency in learning Korean, can escalate into identity issues, discrimination, and conflicts. Additionally, the challenges faced by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during adolescence can exacerbate confusion.

To examine the difficulties and issues faced by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this study utilized the "BigKinds" media database to explore situations reported in the press. Furthermore, national surveys conducted by government agencies were utilized to shed light on their realities. The results indicated a significant lack of educational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revealing their most desired points of improvement.

Therefore, to enhance the proficiency in learning Korean and mitigate

negative emotional development among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it was deemed necessary to introduce Korean cultural education with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pedagogical intervention, the study designed learning activities for a Korean cultural education unit using "Hong Gildongjeon." Cultural elements embedded in the literary work were identified, and the structure of public education textbook activities was adopted, integrating reading, writing, speaking, and listening skills in the Korean language domain.

This study suggests a pathway for more in-depth Korean cultural education tailored to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who possess an intermediary nature in terms of the target audience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t is believed that when cultural education actively engages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rather than adopting an instructive approach, hidden potentials can be unleashed.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future cultural educ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in Korea.